



서울대 同窓會 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1년 9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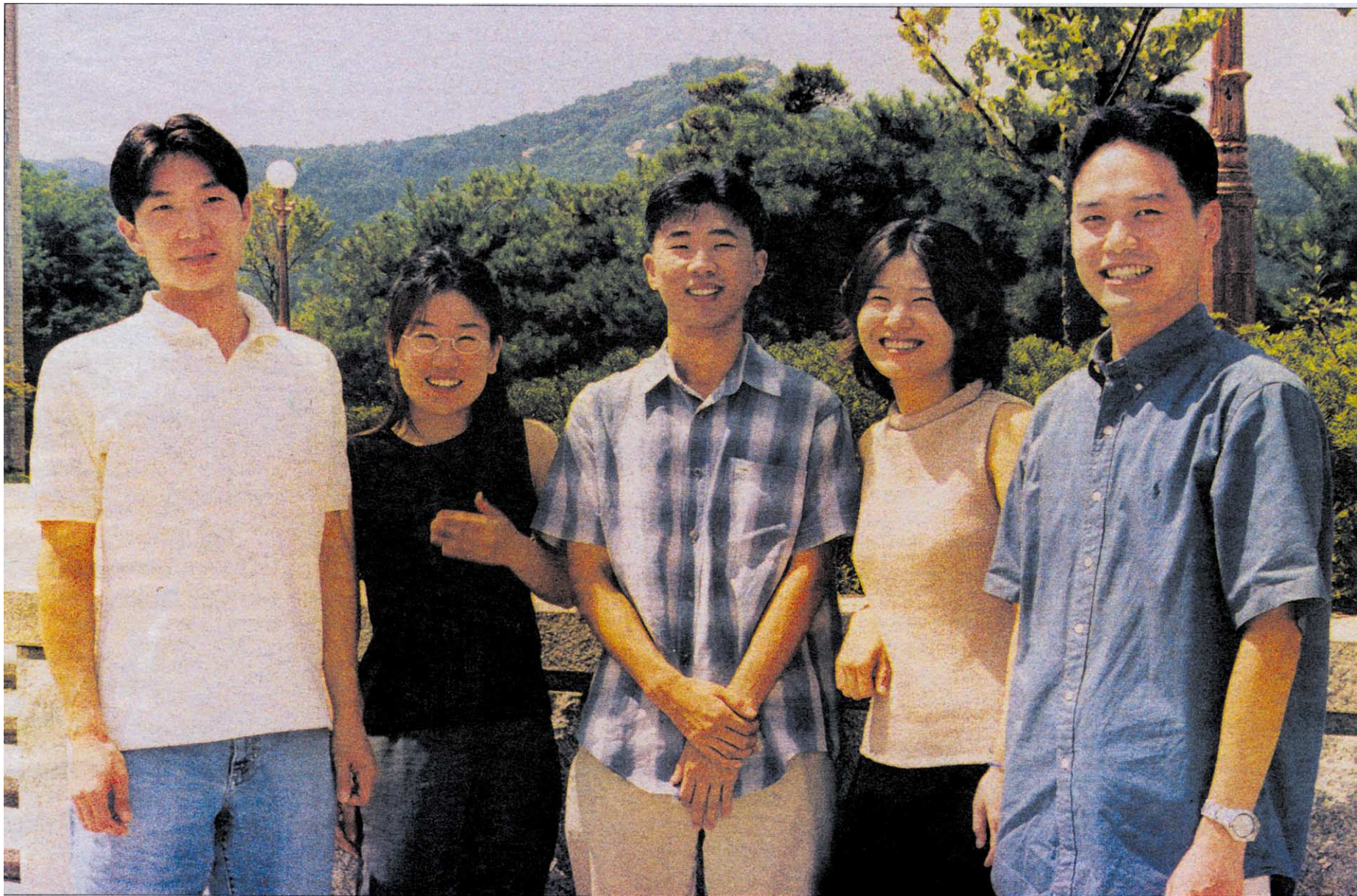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82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702-2233·FAX: 703-0755



후기 졸업을 축하합니다. (좌로부터 宋邦憲·黃珍實·朴亨根·金景珂·林世欽등문) <커버스토리 6~7면>

동창회 새내기, 신고합니다!

관악춘추

금년도 서울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후기에 졸업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동시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원래 모든 사물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 다음에는 여름, 그리고 여름의 다음에는 가을이 오듯이 정해진 때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인간사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기가 되면 취학을 하고, 또 어느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 나라 대학의 학기가 3월에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년제인 경우 2월에 졸업하는 것이 원칙일지도 모른다. 물론 5학기제의 대학원은 다르지만 대학의 경우 함께 입학해서 4년을 함께 캠퍼스생활을 한 후 모두가 다같이 같은 날에 졸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수확도 중에 군대를 다녀오거나,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하는

등의 이유로 8월에도 졸업하는 것이 정례화 되었다.

무더운 한여름이 지나가면서 코스모스가 필 무렵에 졸업한다고 하여 후기졸업을 「코스모스졸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젊음의 낭만과도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도 잠깐, 대학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냉엄한 사회에 몸을 담아야 한다. 올해처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어려운

코스모스졸업

때에 취직전선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사원채용계획을 보면 과거에 비해 채용인원이 급감하고 있다. 전기 졸업생들과 더불어 바늘구멍과도 같은 취업문을 뚫어야 한다. 물론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낫겠지만 그래도 사회가 수용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다. 졸업생 여러분은 진로

에 있어서 뜻한 바대로 모두가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한편으로 여러분이 몸담게 되는 우리 사회는 지금 가치관의 혼돈시대를 맞고 있다. 정치적인 불안과 함께 보혁 갈등이니, 지역감정의 격화이니, 남북대화 중단에 이어 남남대결이니 하는 등의 말이 횡행할 정도로 카오스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광복 후의 좌우대결 등의 혼돈상태를 방불케 한다. 이러한 시대에 서울대 졸업생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막중하다.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시대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자유주의이다. 국민의 마음과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유주의가 아니겠는가. 급격한 개혁이라든가,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보수주의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면 엘리트인 여러분이 지켜야 할 노선은 분명해진다.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엘리트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均)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70년대 군사정권의 유신시절, 한 야당지도자는 중도통합론을 주장했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여야의

절충점을 찾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그의 명분이었다. 그는 당장 사쿠라로 몰렸고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기를 포기한 용기 없는 인사로 낙인 찍혀 야당 내에서부터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상황은 양극의 대립양상으로 이어져왔다. 해방직후 좌우충돌에 이어 자유당 시절엔 이승만 독재와 독재 타도세력, 군사정권 하에서는 군사독재와 민주화세력간의 대결이 우리의 정치사였다. 여기서 제3의 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정치지도자는 이를 간파해 자신의 정치생명마저 단축하는 비운을 맞은 것이다.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민주화세력이 집권에 성공했으나 이런 대결구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래고 긴 어두운 시절 함께 투쟁해오며 대통령의 꿈을 키워온 YS와 DJ, 소위 두 김씨 추종세력의 집권경쟁이 그 뒤를 이었기 때문이다. 두 김씨의 출신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에다 보혁갈등구조마저 끼여들어 오히려 양대 산맥간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DJ가 대권을 잡게 되면 좀 나아지려나 했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젠 전국민이 양대 진영으로 갈라서는 형국이다.

정치에선 여야가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어떤 문제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 해결방법도 다를 수 있다. 여야가 서로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해 나가는 게 민주정치 아닌가. 그러나 지금의 양분 대립상은 분명히 도를 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을 건전한 대안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야당에선 여당은 하루빨리 무너뜨려야 할 타

도의 대상일 뿐이다. 독재정권 시절의 여야나 다름없고 적대감은 더한 느낌이다. 민주화세력의 집권이후

지금까지의 정치상황은 한 쪽이 독재하면 상대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제로섬 게임을 보는 것 같다.

이런 풍토에선 타협을 모르는 극단주의, 강경파나 편파주의가 판을 치기 마련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든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중의 장삼이사까지도 양대 세력에 줄을 서는 전국민의 편가르기 현상이다. 그러나 중도세력의 설자리가 있을 리 없다. 웬만한 타협론이나 국론통합 주장자는 예의 70년대 야당지도자처럼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나 기회주의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투쟁이 필요했던 군사독재 시절엔 타협을 앞세우는 중도통합론은 사실상 패배주의나 다름없는 발상으로 치부될 만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분열의 시대 다음엔 통합의 시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김씨 다음의 지도자들에게 내려진 소명은 바로 이런 양극분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있다고 봐야 옳다.

물론 몇몇 정치지도자들의 힘만으로 극복될 문제는 아니다. 전국민적인 자각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는 정치권이 잡아야 하고 그

앞장은 다음 대선 주자들이 서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최근 정치 행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후보로 꼽히는 이들이 한결같이 지금의 지역갈등구조의 대표격인 3김씨에 인사치레나 하기에 바쁜 것은 적당히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표를 얻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대선주자들은 새 시대가 갈구하는 국론통합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입장부터 밝히는 게 대선 운동의 순서일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洪性萬

새 대권주자들의 소명



洪性萬
경향신문 고문

동문칼럼

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혁신적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서울같이 뛰어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는 매우 드물다. 서울 근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나 등산하기에 좋은 명산들이 많다. 서울 한가운데 아름다운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조금만 가면 바다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서울이지만 공해, 교통난, 주택난, 삭막한 인심 등으로 생활환경은 크게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도 땀살이 불어 허리가 굽어지는 등 비만하게 되면 아무리 타고난 건강체질이라고 하여도 각종 성인병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량한 기업들도 비관련 다각화 등으로 비대해지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외형확대에만 주력한 재벌들이 결국에는 부실기업이 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과거 우리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과신하여 기업의 몸집을 키워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기술, 시장 등 모든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덩치가 큰 기업은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없다.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 환경이 급변하자 멸종된 사실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저원가 전략으로 국제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없다. 우리 나라가 근본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마케팅방법의 개선, 새로운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혁신은 창조적 파괴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내부의 반발, 자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혁신의 기회가 있을 때 이를 과감히 추진하는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혁신은 이뤄질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업을 새로 만들어 경영하는 중소벤처기업가가 대기업의 관리자보다 혁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생존 자체가 끊임없이 위협을 받게되므로 기업가는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기업가는 혁신의 성공에 따른 과실도 많이 차지할 수 있어 의욕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하더라도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혁신의 속도 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내부 의사결정과정과정이 간단하고 창조적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혁신의 기회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기술, 시장이 급변하고 제품 수명주기가

빨라지는 국제환경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혁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와 같은 움직임이 없는 경쟁력보다는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능력 즉 움직이는 경쟁력이 긴요해 지고 있다. 따라서 민첩성, 창의성, 유연성, 결속력 면에서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금년 들어 우리 나라 수출이 크게 저조한 가운데에서도 수출이 급증한 중소벤처기업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벤처기업은 기업가적 가치관의 확산을 통한 바람직한 사회적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불평불만을 일삼고 자기 뉘만 챙기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오히려 사회보장이 잘된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자기가 할 일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어 일종의 선진국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병이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우리 나라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크게 우려할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도 창업과 벤처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열심히 일하거나 일하지 않거나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일하고 책임은 남에게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창업한 사람들은 기업이 잘되면 그 열매를 상당부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기업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은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 따라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벤처기업가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경기의 침체, 코스닥 주가의 하락, 벤처거품론 등으로 벤처기업가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 국제경쟁력강화, 기업가적 가치관의 확산을 통한 책임의식의 고취 등을 위하여 벤처기업이 크게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서울대 동창들이 젊은 벤처기업가를 육성, 지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池龍熙

(65년 商大卒)

서강대 교수

한국벤처학회 초대회장

주요목차

건강을 지킵시다3면
金東岩 모교 명예교수
추억의 창3면
趙成憲 前안성군수
동문을 찾아서8면
文東厚 2002 월드컵축구 조직위 사무총장
화제의 동문9면
張德潤 「푸티」 오프라인 기획자

지부 순례10면
호주 시드니 지부
기과 순례10면
환경조경학과 동창회
동문 기업 탐방11면
(주)휴넷
서울대 가족12면
李秀文 (주)하츠 대표

모교 소식14~15면
후기 졸업식·교수 정년퇴임식
SNUA OPINION LEADER18면
金必立 美콜롬비아대 교수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21면
姜祥昊 iTV 예능팀 프로듀서
박성희 문화산책21면
여전사 & 섹시 요원 & 염기공주

건강을 지킵시다

식물은 공기정화·가습효과 탁월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은 실내 생활공간의 오염은 5대 공중보건 위험요인 중의 하나라고 했고, 이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이 높은 10개의 공공건물 내의 공기는 바깥보다 어떤 화학물질에 있어서는 백 배 이상 더 오염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오염원에 인체가 장기간 노출되면 알레르기, 천식, 화학물질과 민증 및 암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우리들의 현대화된 생활공간도 건강에 관한 한은 미완성된 건축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 동안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생활공간의 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으로 환기와 유해한 합성건축자재 및 오염 잠재적인 생활용품의 사용억제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녹색건물 등의 개념 도입을 제시해왔으나 이러한 제안들은 현실성이 낮다는 결론이었고, 다만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식물을 사용한 오염공기 정화연구결과에만 관심이 모아졌다. NASA의 연구진은 달에서의 기지건설과 기지에서 지속 가능한 생명체 유지를 위한 연구도 중 열대식물이 밀폐된 공간의 오염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식물들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정화해주며 또한 잎을 통한 수분증산과 식물화학물질의 방출로 가습 효과는 물론이고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및 미세한 먼지를 억제해 줌으로써 실내의 오염원을 크게 줄여 준다는 것이다.

오염된 실내공기의 정화능력이 높은 실내식물은 상당수가 있지만 이들 중 공기의 정화능력, 수분증



金東岳(56년 農大卒)
모교 명예교수

산율, 재배용이성, 내병충성 및 외모를 두루 갖춘 식물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동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실내식물은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아레카야자(Areca Palm)이다. 이 야자는 공기정화능력도 높지만 외모가 우아하고 수분증산능력이 높아 하루 1리터의 물을 뿜어주기 때문에 가습기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화분의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 주기와 잎에 분무를 자주 해주고 창가에 놓아두면 무난한 식물이다. 두 번째는 인도고무나무(Rubber Plant)가 어떨까 한다. 별명대로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재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행운목(Happy Plant)을 추천하고 싶다. 공기정화능력도 높고 재배도 쉽다. 그런데 줄기가 갈색인 것보다는 녹색인 종류가 더 기르기 쉽다. 다음은 관음죽(Lady Palm)으로 한계 조건에서 기르기 쉬운 식물이다. 마지막으로 다소 생소할지 모르지만 갈대야자(Reed Palm)로 화원에서 「세이프리지」야자로 통한다. 공기정화능력과 수분증산능력이 돋보이며 아레카야자처럼 관리하면 무난히 기를 수 있는 종류이다.

추억의窓

학부출신과 공무원·군 엘리트 함께 교육
韓昇洙·趙錫俊교수의 새 행정론 인상적

趙成憲(74년 行大院卒)前安성 군수

동송동 문리과대학과 대학본부 옆에 자그마한 붉은색 「ㄱ」자 2층 건물이 우리 학교였다. 학교 앞, 지금은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봉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 옆으로는 상공부 소속의 국립표준연구소라는 서양식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행정대학원은 우리 나라 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건립된 특수대학원이었다.

신입생 모집을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부출신으로 2년 교육과정을 수료 후 행정고시에 80%이상이 합격하는 우수 두뇌집단이었다. 2부는 현직 중앙행정부처의 사무관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정부 부처산하 공기업의 과장급 그리고 현역 소령급 이상의 군 엘리트들을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선발한 후 야간 교육을 실시했다.

내가 입학한 것은 72년이었는데, 당시 원장은 인사행정의 권위자인 朴東緒(53년 法大卒)박사였다. 그는 신입생 환영사에서 「본 대학원은 새로운 지식의 주입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제행정학회 등 각종 행정센터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행정의

새로운 학설이 발표된 후 3일 후면 본 대학원에서는 완전히 소화되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고 이야기 한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차원장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재정론을 강의한 韓昇洙(63년 行大院卒·외교통상부 장관)교수와 조직이론을 강의한 趙錫俊(57년 大學院卒)교수가 새로운 행정이론을 원서로 강의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환영사 후 배석한 교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했는데 그 중 한 분은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라고 서너 번 피츠버그를 이야기하자 다른 한 교수가 「하필이면 피츠버그대학만 들추느냐」고 말해 엄숙한 분위기를 폭소로 변하게 한 적이 있다. 아마 그 교수는 하버드대학도 있고, 옥스퍼드대학,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의 책임자로 갔다 온 분도 있지 않느냐는 뜻이었지만 이 유머는 확실히 좌중을 부드럽게 해 입학식을 추억에 담게 했다.

그 당시 졸업한 동기생들은 지금도 2개월에 한번씩 만나 지난날의 회고담을 나누고 있다. (연락처 : 031-205-8292)



졸업식날 교수님과 함께.(원표시 필자)

2백20명에게 장학금 3억2천여만원 수여

金회장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서울대인이 되기를”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韓受辰(간호대 간호학과 3년)양을 비롯한 1백35명에게 2억2천5백6만1천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이번 장학생 중에는 올해 3월 미대 서양화과 3학년으로 재입학한 崔仙動(52년 美大入) 동문을 비롯해 국제지역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 출신 요와(석사 1년)양과 네팔 출신 포카텔(경영학과 석사 1년)군, 베트남 출신 전후인 로안(인류학과 석사 2년)양 등이 포함됐다.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金회장은 축사를 통해 『島山 安昌浩先生께서는 愛己愛他라는 말을 남겼고, 에리히 프롬은 자기에게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사랑을 줄 수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이 나라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몸을 바칠 수 있다』고 말했다.

모교 金基善학생부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 뽑힌 여러분은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학업을 마친 후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여러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시 갚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徐藝眞(치대 치의학과 3년)양

의 장학생 답사(5면 참조)에 이어 金容九(음대 성악과 2년)군이 趙殷惠(음대 성악과 2년)양의 반주로 「그리운 마음」과 「산타루치아」를 축가로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金在淳회장, 林光洙수석부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李晟遠·鄭八道·金秉順이사·朴英俊감사를 비롯해 간호대동창회 楊銀淑명예회장, 청아치과병원 金讚淑이사장, 인제고교 金鍾祺교장, 가천의대 길병원 尹正哲원장, 성지출판 洪尙郁대표, 모교 金基善학생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85명에게 9천7백27만9천5백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1년도 2학기 장학금은 총 2백20명에게 3억2천2백34만5백원이 지급됐다.

각 단과대학(원)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대동창회(회장 李義淑)=1명:1백57만3천5백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朴明子)=5명:5백만1천5백원 ▲법대동창회(회장 裴命仁)=낙산장학회 장학생 17명:1천8백46만7천원 ▲상대동창회(회장 高炳佑)=향상장학회 장학생 30명:3천1백63만8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佑宰)=3명:7백88만5천5백원 ▲약대동창회(회장 李禮植)=5명:2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 金正吉)=1명:1백93만8천5백원 ▲치대동창회(회장 梁源植)=4명:9백34만5천원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圭植)=1명:2백27만4천5백원 ▲경영대학

원동창회(회장 禹德昶)=2명:3백만원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秀哲)=1명:50만원 ▲신문대학원동창회(회장 趙容直)=1명:1백60만원 ▲행정대학원동창회(회장 韓昇洙)=2명:3백20만6천원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李廷植)=5명:3백만원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相賢)=6명:5백만원 ▲가정간호수습과정동창회(회장 朴永淑)=1명:35만원

亞南 특지장학금

아남그룹(회장 金柱津·54년 法大入·본회 부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아남그룹 김수웅 비서실장이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2001학년도 제2학기 「亞南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金俊暎(인류학과 2년), 閔楠泓(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閔胡俊(경제학부 3년), 南秉祐(동양학과 3년), 韓銀俊(기계항공공학부 4년), 任挑均(기계항공공학부 석사과정)군, 尹水仙花(제약학과 2년)양, 金東均(기계항공공학부 3년), 金泰君(기초과학계열 1년), 朴賢培(경제학부 4년)군 등 10명에게 1천7백46만3천5백원을 전달했다.

洪性大 특지장학금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63

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관악회 상임이사)이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제2학기 「洪性大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洪이사장은 모교 재학생 朴勝彬(중어중문학과 2년), 鄭相鎬(응용생물학부 4년), 宋旻斗(의학과 2년), 宋燦雨(경제학부 3년), 鄭雲慶(의학과 1년), 林炳善(농경제학부 2년)군 등 6명에게 각각 1백50만원씩 총 9백만원을 전달했다.

李吉女 특지장학금

학교법인 가천학원 李吉女(57년 醫大卒·본회 부회장·의대동창회장)이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길병원 尹正哲원장이 대리로 참석한 가운데 2001학년도 제2학기 「李吉女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신입생 석지연(지구환경과학 1년), 韓兌銀(제약학과 1년)양에게 등록금 전액 3백83만5천원을 수여했다.

金讚淑 특지장학금

청아치과병원 金讚淑(60년 齒大卒·본회 부회장)이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제2학기 「金讚淑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개최했다.

金원장은 이날 모교 치대 재학 (5면에 계속)

미술작품

俞香淑作



「얼굴」, 17×10×19cm, 대리석, 2000.

<작가약력>

- △79년 모교 미대 조소과 졸업
- △82년 모교 대학원 졸업
- △83~2000년 여류조각회전
- △85~2000년 서울조각회전
- △90~95년 한국성 - 그 변용과 기능전
- △91~2000년 개인전 5회
- △91년 유향숙 엄선에 2인전
- △92~2000년 어느조각모임
- △94년 6인의 시점전
- △98년 화랑미술제
- △현재 서울사대부여중 교사, 서울조각회·여류조각회·어느조각모임 회원

10월 21일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동문 여러분을 모교로 초대합니다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3회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21일 거행됩니다.

모교를 방문하여 그 동안 잊고 지내던 옛 동문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참가하신 동문가족에게 창작국악의 거봉 黃秉翼(59년 法大卒)동문의 가야금 연주곡이 담긴 기념CD를 드릴 예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01년 10월 21일 (日)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첨

문의전화: (02) 702-2233



(4면에 이어)

생 박斗南(치의학과 2년)양, 朴勝範(치의학과 1년)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4백80만원을 전했다.

張世一 특지장학금

일성(주) 張世一(63년 工大卒·관악회 이사)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제2학기 「張世一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徐在益(전기공학부 4년), 李俊基(경영학과 2년)군 등 2명이 등록금 전액 총 2백63만7천5백원을 받았다.

李鍾基 특지장학금

상영무역 李鍾基(73년 商大卒·관악회 이사)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제2학기 「李鍾基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호남지역 고교출신 鄭泰宇(경영학과 2년)군, 영남지역 고교출신 金珉奭(경영학과 2년), 성준환(경제학부 1년)군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3백44만7천원을 수여했다.

鄭哲圭 특지장학금

신양문화재단 鄭哲圭(52년 工大卒·본회 부회장)이사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제2학기 「鄭哲圭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朴正用(응용화학부 4년), 鄭寓在(응용화학부 박사과정)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3백34만8천원을 지급했다.



鄭八道·李慈倖 특지장학금

(주)흥인 鄭八道(1기 AIP·관악회 이사)회장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제2학기 「鄭八道·李慈倖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鄭동문은 모교 재학생 安炳旭(재료공학부 석사과정), 嚴允性(경영학과 석사과정)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3백39만1천5백원을 전했다.

金秉順 특지장학금

(주)한국구아노 金秉順(4기 AMP·관악회 이사)이사는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제2학기 「金秉順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金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의대 黃善培(의학과 3년), 법대 朴達宰(법학부 1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4백18만9천5백원을 전했다.

특지장학금 전달식

각 특지장학회는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큐피스 朴柱鐸(74년 商大卒·관악회 감사)회장이 설립한 「朴

柱鐸 특지장학금」으로 응용화학부 4년 朴平煜군에게 1백55만9천5백원을 지급했으며, 간호대 동창회 楊銀淑(54년 看護大卒) 명예회장이 설립한 「楊銀淑 특지장학금」으로 간호학과 1학년 咸銀美양에게 2백10만7천5백원을 전달했다.

또한 동일기술공사 黃海根(60년 工大卒)회장이 설립한 「李金玉·黃海根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崔宇辰(법학부 3년)군이 1백5만5천원을 받았으며, 화학과동창회가 설립한 「화학과 동창회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朴正茂(화학부 4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1백52만7천5백원을 지급했다.

한편 鄭大永(55년 商大卒·前한주통산 고문)동문이 부인 閔婉基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鄭大永·閔婉基 특지장학금」으로 鄭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경북 高 출신 모교 신입생 金常旻(경영학과 1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1백29만1천원을 전달했으며, 인천 인제高 金鍾祺(55년 師大卒)교장이 설립한 「金鍾祺 특지장학금」으로 金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인제高 출신 신입생 李鍾濤(법학과 1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1백29만1천원을 전했다.

아울러 성지출판(주) 洪尙郁(87년 農大卒)사장이 설립한 「洪尙郁 특지장학금」으로 洪동문이 특별히 지정한 학교법인 상산학원 출신 재학생 金康勳(기초과학계열 1년)군에게 1백50만원을 지급했다.

기금장학금 전달식

각 기금장학회는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동

문들로 구성된 齒佛會(회장 李貞燮)는 「齒佛會 기금장학금」으로 李鳳基(치의학과 4년)군에게 1백만원을 지급했으며, 본회 李世震(73년 法大卒)사무총장이 「李世震 기금장학금」으로 朴正賢(법학과 3년)군에게 1백5만5천원을 전달했다.

또한 李元珪(63년 農大卒·前산림청 임업연구원)동문이 설립한 「李元珪 기금장학금」으로 모교 재학생 金鍾讚(생명과학부 4년)군에게 1백52만7천5백원을 수여했다. (燮)

장학생 답사

치대 치의학과 3학년 徐藝眞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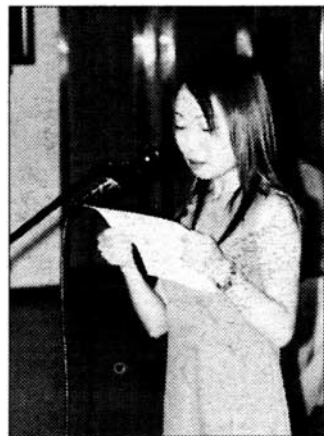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우선 총동창회에서 마련해 주신 이 자리에 2001년도 제2학기 장학생의 한 사람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며 큰 특혜인지 알기에 저희 장학생 일동 역시 저희에게 선배님들께서 쏟아주시는 정성과 보내주시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려 합니다.

건국 당시 우리 나라는 전쟁의 피해에 망가지고 지친 가난한, 그것도 반으로 잘려져 활기마저 꺾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져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각 산업분야, 기술, 인문, 사회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왔는지는 굳이 다른 나라들의 찬사를 인용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럽의 몇 나라처럼 관광지, 유적지에서의 수입만으로도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중동의 몇 나라처럼 대자연의 혜택을 충분히 얻어 자원만으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사람의 힘, 지성과 근면성뿐이었습니다.

저는 방학마다 자원 봉사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소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일 반적인 인식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고 게다가 그들이 근면 성실하여 단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 그리고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진 근성 있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역시 각 분야에서 「국내 최고」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 나라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무척 뿌듯합니다. 범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서 발군의 실력을 뽐낸 사람 중에 한국인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 역시 자주 들곤 합니다.

이러한 발전과 연구 성과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우리 선배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며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배님들께서 주시는 이 장학금은 이러한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한국을 이끌어달라는 선배님들의 기대로, 한국의 역사를 주도해 온 분들의 후배라는 자부심에 더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장학생 일동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의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세계 제일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선배님들의 마음을 언제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식에 치우쳐 창조성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기대와 격려를 받드시 우리의 뒤에 오는 후배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상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여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저희들을 격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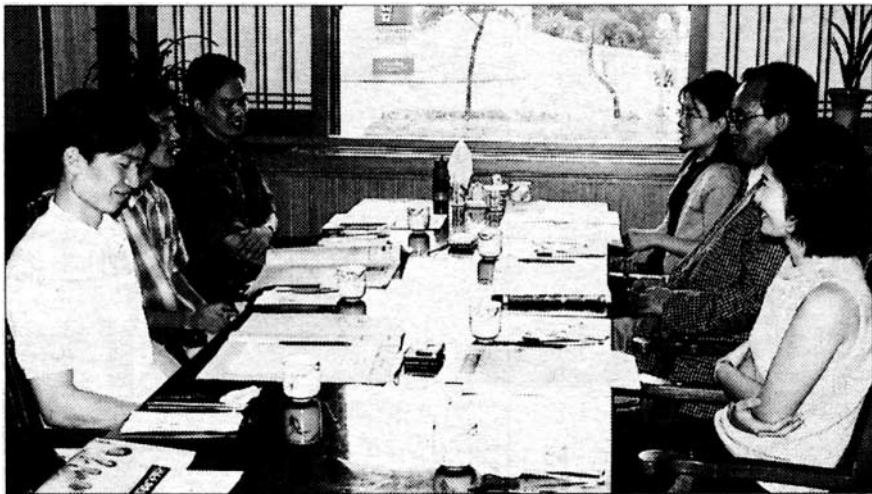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2002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2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在淳·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一根

후배들은 더 나은 여건속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모교는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각 단과대학별로 200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전기 학위수여식에 비해 졸업생 수와 그 규모는 훨씬 적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의 마음은 다를 게 없다. 본격적인 졸업·입학 시즌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금은 허전한 감은 있지만, 이들 역시 나름대로의 계획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후기 졸업생들을 초청해 앞으로의 계획 및 모교에 대해 바라는 점 등을 들어보았다.



사회=본보 李世震편집주간

참 석 자

- 林世欽 95학번·인문대 독어독문학과
- 宋邦憲 95학번·인문대 철학과
- 金景姮 96학번·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 黃珍實 96학번·사범대 수학교육과
- 朴亨根 98학번·공대 전기공학부

사 회: 정규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동창회 입회를 축하 받는 반면, 후기 졸업생들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다소 소홀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 소개와 아울러 후기로 졸업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오.

林世欽: 95년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했으며, 2학년을 마치고 군에 갔다 온 후, 작년 가을 한 학기 동안 미국 남부에 있는 알라바마 주립대에서 어학연수를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올 1학기 때에 남은 학기를 채워 후기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宋邦憲: 인문대 철학과 95학번이며, 다른 계획이 있어서 후기 졸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순차적으로 8학기를 밟다보니 이번 여름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 군대 다녀온 친구들 중 재수강도 하며 한 학기를 더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빨리 졸업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金景姮: 식품영양학과 96학번인 저는 1학년부터 문학회 등 많은 동아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좀 더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 중간 중간에 휴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黃珍實: 96년 사범대 수학교육과에 입학해 재작년 가을학기부터 1년간 일본 홋카이도대에서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곳에서 일본학 수업을 듣게 되어 모교에서 다시 1년간 남은 전공 수업을 듣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재수강 수업을 한 학기 더 해 이번 여름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朴亨根: 전기공학부 98학번이며, 한 학기를 덜 듣고 조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유학을 갈 생각으로 2학년 때 조기졸업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유학에 필요한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부터 GRE시험 등 1년 간 유학 준비를 한 후 내년 9월 경에 미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입니다.

사 회: 대학생활과 관련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宋邦憲: 저는 복학 후의 대학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참 단순했습니다. 수업 듣고, 운동부 동아리활동과 아르바이트, 이 세 가지를 챗바퀴 돌아가듯 했습니다. 다만 캠퍼스를 떠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검도부 동아리활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두 시간씩 운동을 했으며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졸업한 선배들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학생 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朴亨根: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이번 여름 계절학기를 끝으로 마지막 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으로 연극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영어 연극 수업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몸을 부대끼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좋았고, 마지막 수업에서는 그동안 준비한 연극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林世欽: 저 역시 전형적으로 군입대 동안 2년간 쉬었으며, 군대제대 후 2년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1학년 때 잠깐 야구부 활동과 학생회 일을 한 것 외에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黃珍實: 저는 1년 동안 일본

에서 생활한 게 가장 기억에 납니다. 사실 혼자 힘으로 갔다 기보다는 모교의 도움으로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었고, 그 곳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어 무엇보다 학교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납니다. 사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영어와 일어공부를 하던 중 기회가 주어져 일본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귀국한 후 마음에 여유가 생겨 여러 가지 다른 과목들을 들으면서 남은 학기를 보냈습니다.

사 회: 자신이 선택한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졸업한 후에 다른 분야로 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졸업하는 학과, 학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金景姮: 사실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특정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진로에 대해서는 별 고민을 안하고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대학생활을 하면서 전공과목 중 관심이 가는 분야를 공부하게 됐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 자신이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신이 어떠한 학과를 선택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대학생활 4년 동안 여러 학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黃珍實: 앞서 말했지만, 수학이라는 학문이 제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험을 치른 후 학점이 좋지 않아 친구들에게 비해 못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고, 지방출신이라 혼자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여

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칭찬 받을 수 있는 다른 분야를 모색하던 중 우연히 일본 교환학생으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제 전공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林世欽: 학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와 학과를 지원하는 요즘, 저 역시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와 비슷한 학과를 선택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특별히 독어를 공부했다기보다는 언론사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학문을 통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아무래도 인문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을 하다보니 그럴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朴亨根: 저 역시 주위에서 전기공학이 편찮다는 말에 솔깃해 별다른 생각 없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에 몰두하는 성격이라 큰 불만 없이 고등학교 때처럼 그저 열심히 공부한 것 같습니다.

宋邦憲: 정치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입학 전에 가지고 있어서, 포괄적인 입장에서 모든 학문의 원류라고 하는 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철학을 선택한 이유가 그 당시 뭘 해야할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방법을 제시해줄 학문이 바로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철학이 어렵긴 하지만, 그 속에서 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을 때면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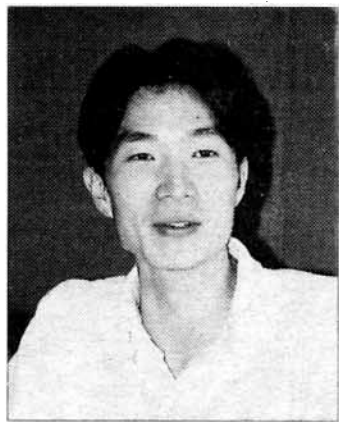
사 회: 학우들과의 동아리 활동,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및 사회참여를 한 경험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오.

黃珍實: 주로 과외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한 선배가 대학 시절 과외를 많이 한 친구들은 회사에 입사해 얼마 있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는 과외와는 달리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장생활이 힘들어 적응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돈을 쉽게 벌다가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한동안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당 2천 원 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오고 가는 손님들과 얘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한 편이라 TV 출연, 간담회 등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했습니다.

林世欽: 미국에 연수 가기 전 석 달 동안 민주번외사모임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자료정리 등의 일을 맡아 했습니다.

朴亨根: 저는 주로 교회 대학부 학생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요양원을 방문,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 및 봉사의 참 뜻을 배우기도 했으며, 불우이웃성금모금 운동 등을 직접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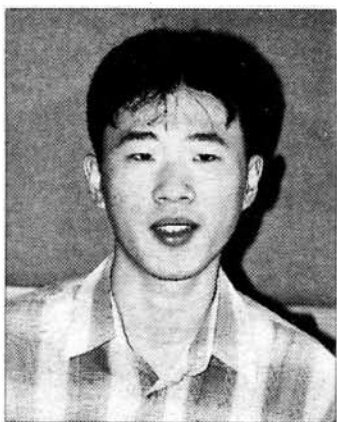
宋邦憲: 군대생활 중 농활 간 것 외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한 게 거의 없었으며, 저 같은 경우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와보니 제가 돈을 벌어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르바이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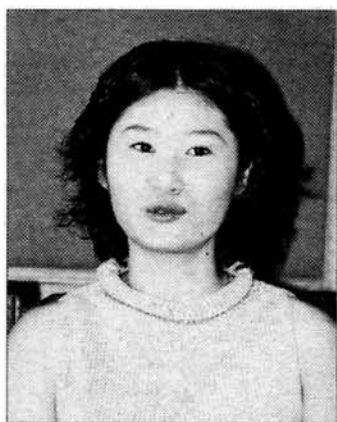
宋邦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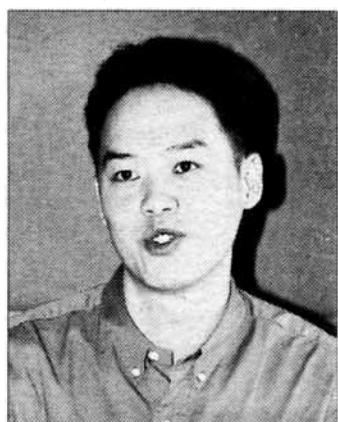
黃珍實



朴亨根



金景姮



林世欽

많이 했는데요, 유일하게 이해 타산 없이 참여한 것은 모교 검토부 주장을 맡았을 때입니다. 부원들 가운데 고등학교 때부터 검토를 한 사람도 있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회가 열릴 때면 실력보다는 얼마만큼 땀을 흘렸느냐에 따라 참가자격을 부여하곤 했는데, 그때의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金景姮: 저는 사회와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농활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나가기도 했는데, 제가 살아온 모습과는 많이 달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대해 관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현재 민주노동당 관악지구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여성모임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월경 페스티벌」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 회: 졸업과 동시에 이제 는 취업, 유학 등 자신의 생활 설계를 할 때입니다. 이 시점과 관련해 장래의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黃珍實: 누구나 전문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을 정하고 그것을 쫓아가기보다는 제가 순간 순간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여름방학기간에는 일본에 통역학원을 다녔으며, 9월부터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 동안 공부할 생각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으로 건너가 직장생활을 하며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林世欽: 대학에 들어와 문학과목을 들으면서 글쓰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및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하고 싶어 현재 언론사 기자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 이름으로 칼럼을 쓰는 것입니다.

朴亨根: 저는 공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대학시절 중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이 趙東成교수님의 「경영학원론」 수업시간이었는데, 기업의 최고경영자 몇분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청강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니, 현 시점에서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22살의 나이에 후회 없고, 가장 하고 싶은 공부를 선택했으며, 공부로써 한번 성공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대학원을 뒤로하고 굳이 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힘든 난관에 부딪쳐보기도 하며, 젊은 나이에 그러한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요즘 바이오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공학(醫工學)을 공부할 생각입니다.

宋邦憲: 취직을 하긴 해야겠는데,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보니 아직도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대학시절에 건설공사장 아르바이트, APEC행사과 같은 이벤트 아르바이트, 병원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이 없고, 성실함으로 임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훌륭히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앞으로 특출난 분야의 문하에서 도제정신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배워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金景姮: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단 대학원에서 여성정치관련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 정치 아젠다(agenda)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를 좀 더 세 부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사 회: 마지막으로 모교를 떠나면서 대학을 비롯해 학교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宋邦憲: 돈이 안 되는 학문이라고 말하는 철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초학문 분야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 복학했을 당시 우리나라는 IMF를 겪고 있어 그 여파가 학교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주위의 친구들은 훗날을 대비해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해 아무생각 없이 경영학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도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기초학문 분야의 가장 첫째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수업과 모든 학문의 응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영학 수업을 동시에 들으면서 상호 비교적으로 느낀 점은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 그리고 응용분야는 모든 면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철학과를 나오면 타 학과에 비해 취직하기가 다소 힘든 상황입니다만, 모교에서라도 이러한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林世欽: 저도 인문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학교 당국이 기초학문 분야에 대해 적지 않은 후대를 하고 있다고 보며, 많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건물시설이야 차치하더라도 변변한 도서관 하나 없고, 간신히 생긴 컴퓨터실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컴퓨터가 몇 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양영어를 없애고 실용영어로 대체한 점은 영어를 단지 어학으로만 접근하려는 시도로 느껴집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책을 많이 빌려보는 저로서는 중앙도서관에 신간 및 정기간행물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졸업생의 입장이지만, 앞으로 후배들이 보고 싶은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朴亨根: 내년부터 학부제 시행과 광역화 모집을 한다고 들

었습니다. 우리들도 학부이기 때문에 한 학년에 3백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를 탐색하고 선택의 기회가 많은 이점도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로간에 알기가 힘들고, 지도교수라고는 하지만 교수 한 명당 50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과는 달리 4년의 대학생활 동안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4~5번밖에 없습니다. 공대도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는 말이 있는데, 1천3백여 명의 학생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처음 대학에 들어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고, 단지 수업만을 받는 입장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학부제의 좋은 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시행 후 여러 가지 닦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

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수업에 관한 것입니다. 공대 같은 경우, 교수님이 문제에 대해 풀이를 해주시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처럼 그냥 받아 적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회사도 탐방하는 실습시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없더군요. 강의도 중요하지만 현장경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문에 대한 학습지도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黃珍實: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다 대학에 들어와서인지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지 잘 몰라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일본에 다녀오면서 많은 부분을 극복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 나라 교수님들과는 만날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을 일본 대학을

다니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는 교수님과 이런 저런 상담도 하고, 잘못된 고민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소상히 지도해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웬지 국내 교수님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에서는 제가 교환학생으로 가는 일 때문에 교수님과 가장 많이 대면한 학생일 것입니다.

처음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 힘든 점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활달하고, 선배를 잘 따르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공부만 늘상 하던 저 같은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소외 받기 쉽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 나라 기업 중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기존 직원들이 신입사원 한 명씩 담당하여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옆에서 챙겨주는 Mentorship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하던데, 학교에서도 학문의 자기 진로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 등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金景姮: 학교가 갈수록 학원 같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들의 일방적인 강의와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등, 분명 대학이 이러한 곳이 아닐텐데 하며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외국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고,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 학점으로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모교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을 모색하고,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제도나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졸업을 하는 입장에서 전기 졸업생들은 종합체육관에서 졸업식을 하는 반면 우리 후기 졸업생들은 각 단과대학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학위수여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기 졸업생들도 다 함께 하는 졸업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 회: 바쁜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뜻한 바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 현장교육이 실용적 교수님과의 대화·상담 기회 적어 아쉬워



2002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 文東厚사무총장

“개최 도시가 세계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

2002년 5월 31일 개막되는 월드컵축구대회. 우리 나라 조직위원회(KOWOC) 사무총장을 맡아 10개월간 실무 책임을 맡아온 文東厚(71년 法大卒)동문은 경기장 건설을 비롯해서 숙박, 수송 문제, 자원봉사자 모집 등 손님맞이 준비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최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 관계가 미묘한데.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이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해 월드컵 축구대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 내부의 준비상태, 또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입니다.』

『어쨌든 1400여 년간 교류해온 일본과 이런 큰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함께 개최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는 지금까지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승화시켜 대등한 관계로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회 준비 현황은.

『월드컵을 개최하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전주,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서귀포 등 10개 도시에서 현재까지 3개의 경기장이 완공돼 사용되고 있고, 남은 경기장도 연말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17일부터 주택은 행본·지점과 우체국, 인터넷(ticket, 2002worldcupkorea.org 또는 www.FIFAworldcup.com)을 통해 입장권 2차 판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9만8백여장의 2차 판매분은 추첨 방식으로 실시된 1차 때와는 달리 선착순으로 판매되며 1인당 최대 구매수도 16장에서 24장

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또 우수 자원봉사자 1만7천여 명을 선발, 10월에 발대식을 갖고 교육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2월 1일 부산에서 열리는 본선 조 추첨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 참여하는 186개국 중 본선에 32개국만 참여하게 되는데, 본선 진출국이 11월 중순쯤 결정되면 A조부터 H조까지 8개 조로 나뉘어 조 추첨을 합니다. 그에 따라 A~D조는 한국에서, 나머지 E~H조는 일본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월드컵을 기해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 손님이 35만명~4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에 7만5천~10만명의 숙박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관광호텔, 여관, 모텔, 휴스테이 등을 모집해서 91%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숙박시설들이 언어나 식사문제에 있어서 국제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의 기대 효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리라 봅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생산 유발 효과가 11조4천여 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조3천여 억 원, 고용 창출 효과를 35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드컵을 통해 10개 개최 도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국의 큰 회사들이 자국내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 세계 여러 도시에 공장을 건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소위 Global Society에서는 그 도시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지역 도시가 세계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접대문화를 세계에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코카콜라, 버드와이저, 맥도날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4년에 한번씩 월드컵이 개최될 때마다 고객관리 차원에서 전세계의 우수 고객을 직접 초청, 관광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월드컵을 통해 외국 사람들을 초청, 경기를 보여줌으로써 격조 높은 접대문화를 보여 줄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을 위해 건설될 경기장 중 7개가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내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축구 자체가 유럽처럼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 축구팀이 우리 나라 코스닥 같은 곳에 상장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고 팝니다. 그야말로 시민 속에 들어가서 산업화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의 경우 TV시청자 수가 190억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8년 프랑스 월드컵의 경우 370억명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TV 시청자 수를 연인원으로 따지면 420억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420억명이 TV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텐데.

『결국 월드컵 개최라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는 우리 나라에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입장권 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나라에서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생각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행정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文東厚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경기조정관, 총무처 조직국장, 대통령 의전비서관·행정비서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 吳世玉여사와 1남 1녀를 두었다. (變)

제2회 商大人 걷기대회 및 등산대회



▲ 제1회 상대인 걷기대회 및 등산대회사진 (2000년 10월 3일)

“관악산이 부른다”

모여라 “뭉치자·돕자·빛내자”

일시: 2001년 10월 3일(10:00)

장소: 모교 노천강당 집합

추석연휴를 그냥
집안에서만 지내시렵니까?
가족동반하셔서
모교 노천강당으로 나오세요.

※ 참가하실 분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별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사무국에 통고 요망.

서울商大總同窓會

TEL: 02)761-2278, 02)761-7172 / FAX: 02)761-7110
E-mail: SNUSD@chollian.net

「Footty」이벤트 기획자 張德潤 동문

전국 동네. 축구경기 진행. 도우미

재학시절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기도

『동네 축구 열심히 잘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대충 우리가 즐거우면 그만이지』라는 마음으로 동네 축구를 할지 모른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축구 선수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 때문이다.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어도 여건이 안되어 꿈을 접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꿈들을 소중히 키우고자 하는 이가 여기에 있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이며, 현재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 「Footty」 오픈 라인 기획자 張德潤(01년 師大卒).

푸티는 전국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팀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 친목을 다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경기를 개최하며 동호인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 푸티에서 張동문은 동호인들이 직접 만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각 지방의 동네 축구 동호인들을 연결시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의 매달 전국을 일주한다.

어찌보면 張동문이 하는 일들은 단순히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가 하는 일들이 우리 나라 축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인지 알게 된다. 우리 나라 축구를 움직이는 단체는 크게 두 군데인데, 외국 같은 경우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시킨 구조를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네 축구는 3부 리그로 볼 수 있는데, 3부 리그에서 우수한 선수들은 2부와 1부로 진출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동네 축구를 관할하는 생활축구협회가 따로 있고 소위 엘리트 축구라고 볼 수 있는 중고등학교부터 프로 선수를 운영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있다. 따라서 동네 축구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로 진출하기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을 푸티라는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는 하나의 구조로 맞추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푸티가 진행한 경기에서 올해 동네 축구 우승팀은 프로 선수의 관문인 FA컵에 진출할 수 있다고 한다. 프로 축구에 앞으로 3부와 4부 리그가 생긴다면 동네 축구와 엘리트 축구간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張동문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를 통해 많은 신인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이며, 수많은 관람자들을 확보해 축구를 활성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가 모교 체육교육학과를 진학한 결정적인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은사의 조언. 『스승의 날이 되어서 찾아갔죠. 워낙 인상이 깊었던 체육 선생님이었습시다. 서울대에 가면 운동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된다고 하시면서 모교 체육교육학과를 가라고 권유를 해주시더라구요』

학창시절 모교 제2회 총장배축구대회 때 그는 경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총장배축구대회도

여느 큰 대회와 마찬가지로 경기부와 사업부가 있어 예산 확보와 경기 진행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그는 『선배 기업을 찾아다니며 후원을 부탁하면 적잖은 후원금을 주시거든요. 그때는 또 학교주변에 식당이 많잖아요. 우리 서울대생이 많이 가는 곳. 그런 곳에 가면 조금씩 후원을 해주세요. 그런 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그때 경험이 지금의 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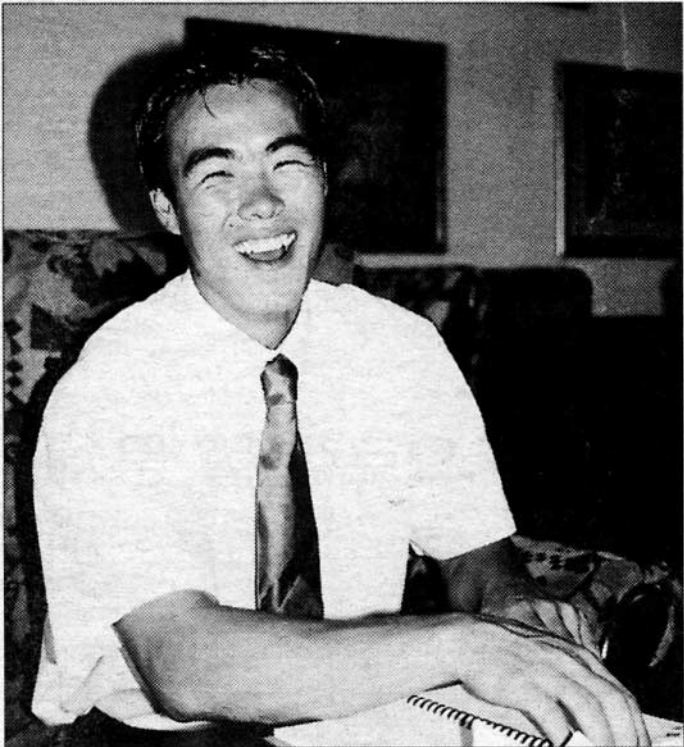
전직 프로 축구 선수의 타이틀, 이것은 그에게 우연처럼 다가온 기회였다. 모교 축구부가 출전한 춘계 연맹전, 그는 대회 관계자의 격려를 통해 용기를 얻어 SK구단에 입단 의뢰를 했다. 마침내 2학년 1학기를 휴학하고 프로 축구 선수로 활동하게 되었다. 훈련 강도는 세고 힘들지만 꿈에 그리던 사철 잔디가 널려있는 경기장에서 TV에서만 보던 유명한 선수들과 운동하니 그 시간은 굉장히 즐거웠다고 한다.

구단의 권유로 다시 학교에 복학한 그는 4학년을 마치면서 푸티에서 입사 제의를 받아 현재의 일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 축구는 아직도 동경의 대상이지만 현재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그때 가까이 지내며 많은 도움을 얻었던 皇甫官(88년 師大卒)동문 등과 같은 많은 선수들을 알게 된 것이 재산이라고.

그가 많은 경기를 진행하며 느낀 것은 한국 축구가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것이다. 지도자, 심판, 선수, 경기장 모두가 인프라에 속하는데, 선수 만해도 일본에 비해서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장도 이제야 부랴부랴 월드컵 경기장을 멋지게 지어놓았지만 경기 끝나고 활용하는데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또 한 예로 일반인들이 활용할 만한 잔디 경기장을 구하는 것은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인 인프라의 부족 현상인 것이다. 이런 인프라 문제뿐만 아니라 축구 문화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다. 동네 축구 경기의 경우 징계의 한계가 있어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張동문의 할 일은 더욱 많아지고, 그에게 책임은 더욱 강조 될 것이다. 앞으로 그는 팀은 많으나 제대로 된 팀도 없고 제대로 된 경기를 경험하지 못한 팀이 많으며, 그런 서비스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대의 명분이라고 한다.

그는 또 『미국의 명문사학들의 경우 아이비리그를 통해 재학생과 동문간의 친목을 다지는 큰 행사인데, 모교에는 이런 이벤트가 너무 없습니다. 축구를 통해 모교가 하나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亨)





호주 시드니 지부

79년 창립...매년 건강관리 세미나로 친목 도모

글 : 柳懿珪 (63년 文理大卒) 前회장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에 소개된 바와 같이 시드니 항구는 그 아름다움이 세계 으뜸이다. 해양에서 깊숙이 들어온 항구의 연안에는 수림이 잘 보존되어 있고 하버 브리지와 함께 어울리는 오페라 하우스는 자연과 인조물이 조화된 미의 극치다.

시드니분지는 약 2억9천만년 전부터 1억8천만년 전 사이에 지반이 계속 침강하는 상태에서 높지와 하상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수림과 토양의 누적으로 형성된 퇴적분지이다. 분지의 서부는 융기되어 블루마운틴이 형성되었으며 관광지로 유명하다. 매몰된 수림은 석탄으로 변했고 시드니 주변에서 생산되는 유연탄은 한국의 삼척, 정선 등지에서 생산되는 무연탄과 같은 시기인 고생대 페름기의

산물이다.

시드니는 호주대륙의 동남부 해안에 위치하며 뉴 사우스 웨일즈 존의 수도이다. 호주 대륙의 원주민은 애보리진이지만 1770년 4월 영국의 해군 선장인 제임스 쿡이 뉴 사우스 웨일즈 해안을 발견하고 보타니 베이에 상륙했던 역사로 인해 후에 이 대륙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 1788년 1월 역시 영국의 해군 선장인 아서 필립이 11척으로 구성된 제1차 선박군에 약 7백50명을 이끌고 제임스 쿡이 상륙했던 보타니 베이에 내렸으나 높지와 모래구름임을 보고 북쪽으로 옮겨 시드니 항구를 발견, 동년 1월 26일 시드니 코브에 영국의 깃발을 꽂았다. 1차 선박군에는 선교받은 범법자, 군인과 총독이 있었는데, 범법자는 대부분이 런던

에서 가난하게 살던 좀도둑, 소매치기, 장물애비, 사기꾼들이었으며 여자들은 대부분 창녀 출신이었다.

1차 선박군이 도착한지 213년이 지난 현재 시드니 인구는 3백20만명에 달한다. 1900년대 상반기까지 유럽의 노동자가 이민의 다수를 차지했으나 1960년대부터 백호주의 정책이 유연화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아시아인의 이주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한인의 경우 1968년 영주권자가 단 한가족 3명뿐이었으나, 33년 후 현재 약 4만 명으로 늘었다. 초기에 이주한 동문 중에는 지질학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현재 동문 수는 1백20명으로 증가되었다.

시드니 지부는 1979년 회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했으며, 초대 회장으로는 그 당시 최고 연장자이며 재호주 생활을 가장 오래하신 禹濟麟(50년 工大卒)동문이 선출되었다. 禹동문은 뉴 사우스 웨일즈대학에서 강의하시다가 귀국, 경희대 부총장을 역임하셨다. 2대 회장에는 李熊彪(57년 工大卒)동문이 선출됐으며, 현재 11대 회장으로 崔炳勳(80년 醫大卒)동문이 수고하고 있다. 崔동문은 의료원을 개업하고 한인교포를 위해 많은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회원의 단과대학별 구성을 보면 공대가 25명으로 제일 많고 농대와 문리대가 각각

16명, 사대 11명, 상대와 미대가 각각 5명, 그 외 단과대학은 2~3명 정도이다.

정기총회는 매년 송년회를 겸하여 열리고 있으며, 이 때에 연중 회원이 가장 많이 모이며 부부동반으로 친목을 도모한다. 만찬에 이어 학술, 건강관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갖고, 가라오케와 디스코 시간 등 여흥도 즐긴다. 또한 가족을 동반한 춘추야유회 때는 소체육회를 열어 육상 및 구기의 실력을 발휘하며, 연 3회 골프대회도 실시하면서 서로의 묘기를 보여준다. 1991년 후기야유회에는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趙完圭(52년 文理大卒)동문이 호주에서 열린 대학총장회의 기간 중에 참석했으며, 1992년 송년회에는 文祥得(53년 師大卒)동문이 참석해 특별강연도 가졌다. 이어 1999년에는 현 총장인 李基俊(61년 工大卒)동문이 뉴질랜드에서 열린 대학총장회의에 참석한 후 시드니 지부를 방문, 회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그 외에도 모교 교수 및 동문의 방문이 있을 때 회원들이 모여 환담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崔炳勳 회장



모교 李基俊총장 환영 만찬회.



환경조경학과 동창회

6백여 회원, 취미 동호회 주축으로 뚝뚝 뭉쳐

글 : 崔江林 (93년 環大院卒) 간사



金昌鑫 회장

환경조경학과 동창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과, 환경대학원 동창회의 사업 및 운영 면에서 보조를 같이 하며 학과의 특성을 살피 동문간의 유대를 더욱 깊이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87년 설립됐다.

동창회는 12대 金昌鑫회장(87년 環大院卒·건원 엔지니어링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임원진(고문 11명, 회장 1명, 부회장 11명, 감사 1명, 간사 1명)을 포함해 5백9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조경학과 동창회에서 실시하는 주요 사업 및 행사로는 매년 1월 중 정기총회 겸 동문 전체와 환경조경학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신년하례식과 모교 방문 행사인 Home Coming Day가 있으며, 장학사업은 환경대학원 동창회 차원에서 실시되어 매 학기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간물로는 동창회 소식지를 환경대학원 동창회 차원에서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환경조경학과 회원명부를 2년마다 발간하여 배포

하고 있다.

한편, 동창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최되는 이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간사 및 기별회장), 고문, 감사 등으로 구성되며 동창회의 활동계획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매월 모임을 갖는다.

환경조경학과 동창회의 대표적인 행사인 Home Coming Day는 회원간의 친목과 모교와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5월 5일, 관악캠퍼스 교내에서 개최되어 왔다. 이 행사는 동문들이 가족을 동반해 참여하는 가족모임의 성격이었고, 특히 어린이날 유년기의 동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실제로 초창기 Home Coming Day에 유년으로 참여했던 동문자녀들이 지금은 성년이 되어 그때의 즐거움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당시 비슷한 연배들로 구성되었던 동창회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원들이 전환됨에 따라 이전의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한 가족모임의 성격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시도로 2000년에는 환경조경학과가 새로 입주하게 된 환경연구관 신축을 기념해 동문들의 학술발표 및 작품발표를 중심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이러한 변화하는 여건과 생활양식 등의 이유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형식으로서의 변환을 모색하고, 개최 시기도 5월 5일 어린이날에서 9월 내지 10월의 가을로 변경해 시행할 예정인데, 그 한 대안으로 다양한 관심사와 연령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가을부터 가을 명산 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환경조경학과가 이제 30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고, 동창회의 역사가 그만큼 깊어갈수록 다양한 연령층의 동문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환경조경학과 동창회가 앞으로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이 이

러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인의 취미 및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소모임의 형성 및 활성화이다. 동호회 형식의 소모임을 기본단위로 동창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현재 골프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등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조경학과 동창회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모든 동문들에게 언제라도 열려 있고, 지속적이며 자연스러운 참여가 이뤄지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홈커밍데이 행사.



⑥2 (주) 휴넷

온·오프라인 쌍방향 종합 경영지식 제공 벤처창업 꿈 키우는 기업인들에게 '안성맞춤'

바야흐로 21세기는 지식과 인터넷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기업이 경쟁에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경영 및 조직관리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사업 및 경쟁전략, 마케팅 등 종합적인 경영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경영지식을 제공하는 산업은 모두 오프라인 경영컨설팅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시간과 인력으로는 매출의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999년 경영지식 포털 사이트를 연 동문 기업이 있으니 바로 (주)휴넷(사장 曹永卓·89년 經營大卒)이다.

기업들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무와 이론이 적절히 배합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경영자문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경영목표인 휴넷(www.hunet.co.kr). 또한 온라인 상에서 기업이 겪는 여러 경영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이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는 기업의 고객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고민에 명쾌한 방향제시를 해오고 있다.

한편 휴넷은 벤처 인큐베이팅 사업 및 금융 컨설팅, 경영자문, 출판교육 사업, 벤처기업의 IR 및 홍보대행, 마케팅 및 투자자문까지 벤처기업 창업이전 단계부터 코스닥 상장,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토털 지식제공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차입금 0%의 원칙을 고수하며 더욱 더 공격적인 경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마케팅 시장 조사방법론」 7천원, 「워크샵 매뉴얼」 1만원, 「벤처기업의 회계와 세무 동영상 강의」 7천원, 「이메

일 마케팅」 3천원...이는 휴넷의 경영지식물에서 판매되는 지식상품들. 그밖에 경영 콘텐츠, 동영상 강의물, 사이버교육과정, 특별보고서 등 총 3백여 개 이상의 지식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한번 상품을 구입하면 재구매하는 경우가 30%를 상회할 정도로 비용과 시간문제에 의해 실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경영지식을 전자상거래 개념으로 끌어올려 자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명 외부 사이트에 입점하는 경영지식물을 내놓는다면 지난 5월 전국의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프로그램 「CBI Korea」(Cyber Business Incubator Korea, www.cbikorea.com)를 다산벤처(주)와 공동으로 개설해 화제가 됐다. 현재까지 2백50여 개의 기업을 회원으로 확보해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1천여 개 기업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曹사장은 이에 대해 『전국에 3백80여 개의 창업보육센터와 1백70개의 벤처 집적시설에 5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벤처의 꿈을 키우고 있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벤처의 꿈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본인 또한 벤처기업에서 시작한 만큼 타 벤처기업들도 함께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창업보육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CBI Korea」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회비 35만원. 1년에 35만원만 내면 창업보육에 필요한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모든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의 꿈을 키우는 모든 기업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듯 저렴한 가격에 경영정보 콘텐츠를 제공해 과연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지만 휴넷은 올해 매출 10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문제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휴넷이 자금 걱정 없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백여 명의 주주가 뒤에서 적극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모를 통해 소비자들로 구성된 주주들은 회사 재정상태 및 자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등을 실시간 이메일로 받으면서 사업을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탄탄한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휴넷은 작년 6월부터 매주 목요일

벤처인을 위한 실무 특강 시리즈를 시작, 지난 9월 첫째 주에 50회를 달성하면서, 명실공히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업계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방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동영상 사이버 강좌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년간 휴넷이 경영지식제공업체로 확고한 입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曹사장 및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임직원들의 땀방울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曹사장은 휴넷을 설립하기 전 금호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그룹의 구조조정과 미래 발전전략을 담당했으며, 젊은 나이에 몇 번의 승진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그는 속도 경쟁이 벌어지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on/off-line이 동시에 가능한 경영지식 제공 기업을 세웠다.

현재 휴넷에는 曹사장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한국외국어대 權錫均(80년 經營大卒)교수, 마케팅 자문 全成律(86년 經營大卒)동문, 경영전략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李仁淑(88년 經營大卒)동문, 鄭昌權(95년 師大卒)마케팅 팀장 등을 포함해 다수의 동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表〉



앞줄 가운데 曹永卓사장.



(주)하츠 李秀文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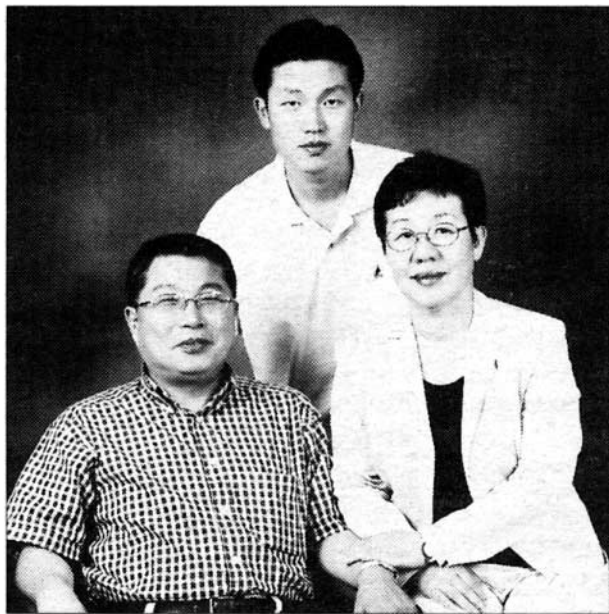
네 식구가 공대·미대·법대·사회대 출신 “전 공학과·관심사 달라도 우리는 하나”

모두들 모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이외에 가족이면서도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아니, 다르게 해석하자면 공통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점이 이들 각자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그들이 바로 李秀文(73년工大卒·(주)하츠 대표) 동문, 부인 車明熙(70년美大卒·모교강사·화가)동문, 아들 李柱濤(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4년)군, 그리고 형 李秀一(70년法大卒·한국감정원장)동문 가족이다. 비록 가족 수는 적지만, 네 사람 모두가 전혀 다른 단과대학을 졸업한 것만으로도 이들이 내는 색깔은 실로 다양하다.

중학교 입학 후 연극반 선배의 눈에 띄어 연극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李秀文동문은 특히 곱상한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줄곧 여자 배역을 도맡아 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연히 대학도 예술계통을 전공하리라는 판단은 금물이다. 그의 자유분방하고, 예술가적 기질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공대에 입학한 것이다. 의대와 공대, 양자택일을 하라는 부친의 뜻을 차마 거를 수가 없어 그나마 여유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공대를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李동문의 연극에 대한 열정은 대학시절을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공대 학생들로 구성된 「실극」을 창립하기도 한 李동문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주말마다 선후배들의 연극무대 뒤에서 이들을 격려하며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듯 전공보다 자신의 취미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李秀文동문과는 달리 부인 車동문은 자신의 전공인 미술에 모든 인생을 투자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車동문은 그러나 몸이 허약한 관계로 주변으로부터 운동을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 이러한 연유로 車동문은 중학교 시절부터 탁구부 선수로 활동했다. 단지 체력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한 車동문은 전문선수를 양성해야 하는 학교 지침에 따라 혹독한 연습을 견뎌야만 했다. 지쳐 가는 車동문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결국 다시 미술을 시키기로 생각하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인 미술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에 나섰다.

車동문의 학창시절은 늘상 학교 작업실에서 밤을 새는 기억들밖에 없다고 한다.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그리기 위해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되는 학과 특성상 시끌벅적한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그래서 동기들과 함께 교내에서 적당한 위치를 골라 늦은 밤까지 작품을 그리며 열정을 바쳤다. 이 때문에 밤중에 종종 수위아저씨에게 쫓겨나기도 했다고.

李동문이 처음 車동문을 만난 것은 클럽활동에서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둘은



좌로부터 李秀文동문, 李柱濤군, 車明熙 동문, 원내 李秀一동문.

그저 잘 아는 친구 사이였다. 이들이 결정적으로 평생을 보내게 된 것은 李동문이 복학하고 나서이다. 후배들과 늘상 같이 건축작품을 만들어야 했던 李동문은 이들의 먹거리까지 책임져야 했고, 이로 인해 공대 조교실과 미대 조교실(당시 車동문은 조교로 활동하고 있었다)을 기웃거리며 점심 값을 요구하며 더욱 친해졌다고 한다.

한편 장남이자 막내아들인 李柱濤군이 모교 사회대를 지원한 이유는 단순하다. 입학당시, 李동문은 품(?)나게 살려면 문리대 미학과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車동문은 미대를, 李秀一동문은 법대를 적극 추천했지만, 모두 주문이 다른 바람에 李柱濤군은 상의 한번 없이 대학입학 원서에 모교 경제학과를 썼다고 한다. 지금도 李군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자신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부모님께 말할 정도로 어떤 것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들 가족은 별 다른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서로 간에 꼭 지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호불간섭주의. 사실 이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금방 티격태격 거리가 일쑤다. 이는 각자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처럼 서로의 일을 알기알부하며 간섭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李동문은 자신의 가족관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족은 오손도손 얘기하며 서로 맞춰가며 살아야한다고들 말하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상대방도 자기의 것과 비슷한 분야를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면서까지 억지로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큰 말썽 없이 각자 원하는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李동문의 형 李秀一동문 역시 개성이 강한 인물. 李秀文동문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나이 차도 많이 나지만 어릴 적 추억은 거의 형과 했던 것들이다. 연애편지를 건넨다든지 형 친구들이 사고(?)를 칠 때면 어김없이 동생인 본인이 떠맡았다고 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3남2녀 중 장남인 李秀一동문이 가장 역할을 하며 더욱 동생들을 아꼈다고 한다.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라 당연히 법대를 가야된다고 생각했던 李秀一동문은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년간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경찰생활을 했다. 그의 공은 성품으로 인해 이후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건설회사를 거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구 인테리어를 직접 개발하며 공장까지 짓기도 한 李秀文동문은 현재 세계 수준의 레인지 후드업체를 지휘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더욱 탄탄한 회사로 자리 매김해 후배들에게 이를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李동문은 끝으로 『가족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줌으로써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끈끈한 가족애의 저력을 밝혔다. (表)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趙東蘭(70년 看護大卒)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 교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의미가 깊다. 어찌 보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뒷북이나 치는 쓸데없는 일이 소를 잃은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겠으나,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소를 더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늦었지만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소를 잃었다고 누구나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는 잃었지만 나중에 더 많은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외양간을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부르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누구나 외양간 고치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즉시 고칠 수 있다.

복잡한 산업사회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고 연간 2천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이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해도 재해를 완전

히 없앨 수는 없으므로, 그렇게 예방하지 못했던 재해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 응급처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처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구나 응급처치를 배우고 기술을 익혀야 한다.

요즈음에는 심장질환이 전보다 많아져서 이로 인한 심장마비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밖에 질식·감전·익수 등으로 인한 호흡정지나 심장마비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응급처치 특히 심폐소생술을 배워 놓으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기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 나라의 응급처치교육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응급처치가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다. 호흡이 없거나 심장이 멎은 경우 4분 이내에 맨 처음 발견한 사람에 의한 처치가 이뤄지고 8분 이내에 전문가에 의한 처치가 시행되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초·중·

고 저학년 학생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이 보급되어 있는데 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 거의 한번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국민이 대다수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결과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의 소생률이 선진국의 20%와 우리 나라의 4%라는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심장질환을 예방하거나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말할 필요도 없이 바람직하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평소 익혀 놓았던 이러한 기술이 한 생명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사례가 많다.

얼마 전 한 사업장에서 유독가스 사고 현장에서 모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는 가운데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한 근로자가 질식된 동료로 인공호흡으로 회생시켜 회사에서 표창을 받았고, 어떤 부인은 심장마비를 일으킨 남편의 가슴을 자극하여 되살아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기도에 사탕이 막혀 질식 직전에 이른 어린이를, 응급처치 교육시 배웠던 기술로 사탕이 튀어나오게 한 후 인공호

흡으로 살린 경우 등등... 응급처치로 생명을 보호했던 예들을 많이 듣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필자 친지의 경우, 남편이 심장질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필자가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으나 배우기를 거부했다. 남편이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119에 연락을 했지만 10분이 지난 후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뒤여서 끝없이 후회하며 오열했던, 정말 한이 남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有備無患이다.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만약 소를 잃었더라도 더 이상의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즉시 고칠 수 있는 기술을 모든 농부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비상시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필자 나름대로 속담을 풀이해 보았다.

디지털 시대, 여전히 「사람」만이 희망이다

金甫城(84년 農大卒)다움연구소 부소장·부천시 문화정책전문위원



자신의 전공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동문들이 여러 있었지만 필자 역시 거의 다른 인생행로를 걷고 있다. 대학생活的 대부분을 차지한 노래동아리(메아리)활동은 결국 나를 「노래를 찾는 사람들」 원년멤버를 필두로 92년부터는 대표로 활동하는 계기로 이끌었고, 2000년까지 비영리 민간음악단체인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사무총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노찾사」와 협회활동까지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다양한 공연활동을 기획·제작·연출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왔지만 특히 잊을 수 없거니와 힘든 와중에도 늘 힘찬 격려가 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느 지역에도 자기 신명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점차 개인주의화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정을 잊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만났던 기억은 지금도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지탱해주고 다시 의지를 추스르게 해주는 힘이 되어 준다.

지금은 우리 나라의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한국적인 예술경영인을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민간전문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다. 자그마한 꿈이 있다면 훗

날 누군가 나를 「문화기획가」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문화가 일상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사회적 풍토를 형성하는데 일조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21세기가 문화예술의 시대라고는 하나 문화는 간 곳 없고 선부른 성과 위주의 경제결정론이 앞장선 산업화 욕구만 내부끼는 현실에서 나의 작은 바람은 때론 소중한 가치로 격상되기도 한다. 「문화와 예술이 원조나 자선사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위한 풍부한 사회적·자연적 자본」(Colin Tweedy, 「기업과 문화예술의 연대」중에서, 기소르망과 폴린 트위디 초청 국제심포지엄, 2000년 7월)이라는 지적에 이르면 제법 현대적 이론의 틀을 쓰고 기세가 등등해질 법도 한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환경은 오히려 「문예진흥기금 모금 중단」 정책 발표와 「이자율 하락」으로 악화 일로에 있다.

더구나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어디에서도 문화컨텐츠조차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진흥책을 위한 투자에 우선되어 있지 「비영리 예술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감하고도 획기적 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필자는 아직도 민간의 비영리예술의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 여전히 매우 소극적인 현

상황을 시급하게 개선시키는 문화기획자가 되고 싶다.

문화관광부는 올해를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역문화의 특성화와 균형적 발전을 위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의 현상을 볼 수 있는 잣대가 없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문화지표가 이제 개발 중이거나 매우 제한된 영역으로 개발된 지표체계를 확정하여 현재 조사중인 단계이다.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지역문화의 해를 발표하기 1~2년 전에 이 지표체계를 통한 조사가 완료되고 분석되어 진흥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무슨 무슨 해」를 발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수립할 문화지표체계를 충분히 또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분석하고 체계화할만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 것도 「문화예술의 세기」라는 구호를 공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필자는 문화예술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성숙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문화기획자이고 싶다. 우연히 일본정부의 홈페이지를 뒤지다가 일본의 21세기 유망직종 분야에 「인력(人力)」이라는 표현을 보았다.

일본정부가 「생활문화(生活文化)」와 더불어 인력개발을 중요한 분야로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사실 디지털 세상의 도래와 더불어 콘텐츠비즈니스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확신에 찬 분석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인재양성인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인력들 간의 휴먼네트워크인 것이다.

전근대적 인맥과 그 질을 달리함은 물론이다. 높은 수준의 문화적 안목과 예술적 감성으로 무장된 전문인력들간의 문화예술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한 네트워크야말로 21세기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지름길인 것이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이라는 속설처럼, 사람만이 희망인 시대에 우리는 자칫 속절없이 구호로만 문화의 세기가 도래했음을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에 대한 투자 즉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은 당장 뭘가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리사랑하듯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진일보하고 시원한 청량제 같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멋진 나라의 문화정책을 일구는 문화기획자이고 싶다.

모교소식

2000학년도 후기 졸업 총 1천5백5명 학위 받아

“신입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교 200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범대와 생활과학대를 시작으로 각 단과대학(원)별로 거행됐다. 이번 학위수여자는 총 1천5백5명으로 학사 7백49명, 석사 4백18명, 박사 3백38명이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 수는 26만8천2백5명(준회원, 단과과 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수 및 동창회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에 생물자원공학부 柳寬熙교수

지난 8월 1일자로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입 학장에 생물자원공학부 柳寬熙(67년 農大卒)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신임 柳학장은 67년 모교 농공학과를 졸업하고, 72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생물자원



공학부장, 농생대 교무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金允植교수 등 18명 정년 및 명예 퇴임

지난 8월 31일 교수 18명의 정년(명예)퇴임식이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퇴임식에는 李基俊총장을 비롯해 보직교수와 정년퇴임 교수가족 등이 참석했다. 퇴임식 행사 후 호암교회관에서 송별 오찬을 가졌다.

이번에 퇴임한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允植교수(국어국문학), 閔丙

秀교수(국어국문학), 李相沃교수(영어영문학), 安秉直교수(경제학), 李將鎬교수(심리학), 康賢斗교수(언론정보학), 朴炯錫교수(화학), 李潤榮교수(화학), 李仁圭교수(생명과학), 安元榮교수(생물자원공학), 車京守교수(사회교육), 尹世哲교수(역사교육), 李成千교수(국악), 李迎雨교수(의학), 李栽興교수(의학), 梁源植교수(치의학), 尹壽漢교수(치의학), 吳錫泓교수(행정학).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8월졸업	총 회 원
인 문 대 학	107	8,275
사회과학대학	107	10,543
자연과학대학	57	8,274
가 정 대 학	19	3,140
간 호 대 학	-	2,931
경 영 대 학	50	4,884
공 과 대 학	160	33,886
농업생명대학	65	17,824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13	4,151
법 과 대 학	45	13,890
사 범 대 학	97	22,460
상 과 대 학	-	6,723
수 의 과 대 학	3	1,920
약 학 대 학	-	5,468
음 악 대 학	26	6,096
의 과 대 학	-	9,718
치 과 대 학	-	5,305
대 학 원	680	61,631
경영대학원	-	701
교육대학원	-	653
보건대학원	39	2,543
사범대학원	-	508
신문대학원	-	264
행정대학원	21	3,699
환경대학원	16	1,728
소 계	1,505	246,946
준 회 원	-	13,338
(단 기 과 정)	-	7,921
총 계	-	268,205

4·19기념탑 이전

두레문예관 앞 공터

모교는 4·19혁명이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으로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하나의 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의 현 위치가 캠퍼스의 외진 곳에 있어 그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접근이 용이한 위치로 기념탑을 이전, 4·19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기로 했다.

이전될 위치는 관악캠퍼스 두레문예관 전면 공터(약 3,500㎡)로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곳에 기념탑 이전과 함께 기념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7월부터 기념탑 이전에 관한 학내외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세부조정계획을 확정해 9월부터 이전공사를 시작,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전기·컴퓨터공학부 李信斗교수

6억원 상당 주식 모교에 기증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李信斗(80년 自然大卒)교수가 인문·사회 등 기초학문 육성과 공학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6억원 상당의 벤처기업 주식을 모교에 기증했다.

지난 8월 19일 李교수는 액정 표시장치(LCD) 개발 벤처기업인 (주)스마트디스플레이사의 주식 30만주를 모교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지난 7월 주식 납입을 약속하면서 3분의 1씩 나눠 인문·사회대, 공대, 전기공학부에 각각 10만주씩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李교수는 미국 브랜다이스대에서 액정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벨통신연구소를 거쳐 서강대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기계항공공학부 金承祚교수

초저렴·고효율 슈퍼컴퓨터 완성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金承祚(73년 工大卒·사진)교수팀이 용산 전자상가에서 구한 펜티엄Ⅲ급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64개를 조립, 3천만원대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

슈퍼컴퓨터란 계산속도가 현재 사용되는 PC보다 수백에서 수천배 빠르고 많은 자료를 오랜 시간 꾸준히 처리할 수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로, 현재 모교가 보유하고 있는 IBM 슈퍼컴퓨터의 경우만 해도 구입비가 30억원이나 들었다.

에어로 탱크(Aero Tank) 1호로 이름이 붙은 이 슈퍼컴퓨터는 오는 11월 미국 덴버에서 열리는 「슈퍼컴퓨터 학회 2001」에서 초저렴·고효율 부문에 수여하는 고든벨(Gordon

Bell)賞 최종 결선까지 오른 상태이다.

金교수는 『이 기술이 활성화 되면 슈퍼컴퓨터 한 대당 수십 억원에서 수백억원씩 해외에 지불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며 연구실 홈페이지(aeroguy.snu.ac.kr)를 통해 기술을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金顯場교수 등 8명 명예교수로 추대

모교는 지난 7월 18일 金顯場교수 등 8명을 새로 명예교수로 추대했다. 이번에 새로 추대된 명예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顯場교수(서어서문학), 成百仁교수(언어학), 元鎬澤교수(심리학), 任京淳교수(동물자원과학), 朴應鎭교수(수의학), 馬点述교수(수의학), 趙忠鎬교수(수의학), 孫同銖교수(치의학).

의과대학 교향악단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연주회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예비의사인 모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한 여름 밤 무더위를 식혀줄 공연을 개최했다.

의과대학 교향악단(단장 梁民錫·본과 3년)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한 여름 밤 음악회」

를 지난 8월 6일부터 나흘간 모교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의대 학생 30명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영화 시네마천국의 「사랑의 테마」 등 일반인들에 친숙한 곡들을 선보였다.

모교 병원·의과대학

춘천 두산리조트서 세미나 개최



의과대학(학장 李宗郁)과 모교 병원(원장: 朴容眩)은 지난 8월 17일, 18일 양일간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제23차 대학·제8차 병원 발전 세미나를 개최

했다. 병원과 의대 교수 약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정책연구실장 李賢淳교수와 내과 金哲鎬교수

가 각각 「의료정책연구실 현황」,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건립 현황 및 각과 의견 수립」에 대해 특별 보고를 했다.

또 「대학과 병원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 아래 「대학원 학사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金重崑의대 기획조정실장이, 「교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韓圭燮병원 기획담당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뒤이어 참석한 교수들이 열띤 토의를 벌여 대학, 병원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의대 피부과 尹在一·徐大憲교수

美피부과학회지에 논문 게재

모교 병원 피부과학교실 尹在一(72년 醫大卒)·徐大憲(87년 醫大卒)교수의 공동연구 논문이 세계 피부과학분야 임상연구 최고 권위잡지인 「미국피부과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최신호에 실렸다.

이번 연구논문은 심사위원들

로부터 광화학 치료를 받는 건선 환자에서 생체공학적 기구를 이용해 피부색과 혈류를 치료에 관한 임상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특히 동양인의 피부에서 병태생리를 밝히고 서양인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있는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變)

자외선 조심할 사람 따로 있다!

흰 피부, 20대 여성 피부손상 심해

올해처럼 피악별이 내리쬐는 여름철에는 특히 하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나 실내에서 생활하는 직장인,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자외선에 훨씬 더 예민한 것으로 나타나 야외에 갑자기 피부를 노출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모교 병원 피부과 尹在一(72년 醫大卒)교수팀은 한국인 고유의 광피부형 분포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3년간 전국 6개 권역(서울 200명, 경기 336명, 강원 194명, 경상 193명, 전라 161명, 충청 212명)에서 남녀와 20대에서 50대까지 균등하게 나눈 총 1,296명을 대상으로 자외선 반응에 대한 직접 면담과 설문조사를 거쳐 광피부형을 정한 다음 성별, 연령대별, 직업별, 자외선 노출 정도, 고유의 피부색 정도를 비교했다. 그리고 청년층의 일부에서 자외선 조사 후의 최소홍반량과 피부색갈의

정도를 멜라닌색소 침착정도를 재는 색깔측정기로 측정한 후 이들과 피부형과의 관련성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尹교수팀은 우리 나라 사람의 광피부형을 햇빛에 의한 반응정도에 따라 흑인에 해당하는 6형을 제외하고 1형(언제나 심하게 탄다), 2형(자주 심하게 탄다), 3형(적당히 탄다), 4형(약간 탄다), 5형(잘 안 탄다) 등 5개 군으로 분류한 결과, 우리 나라 사람의 고유 피부형은 3형이 48.8%(632명), 4형 22.2%(288명), 5형 17.8%(231명)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3형과 4형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연구 책임을 맡았던尹교수는 「이번 연구조사 결과, 자외선으로 인한 우리 나라 사람들의 광피부형의 개인적 차이는 선천적인 피부형이 전체를 좌우하지만 직업이나 자외선 노출 정도에 따라 후천적

인 영향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며 특히 「자외선에 과민한 1, 2형의 흰 피부를 가졌거나 피부가 희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20대 젊은 여성들은 요즘 같은 휴가철에 바닷가 등 야외에서 피부를 갑자기 노출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尹교수는 「갑자기 과다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면 일광화상, 기미, 주근깨와 함께 피부 깊숙한 진피층에서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콜라겐(collagen)과 엘라스틴(elastin)이 파괴됨에 따라 잔주름 등 피부노화를 유발하며 심할 경우 피부암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일단 일광화상을 입게되면 화상부위를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며 특히 「자외선에 과민한 피부형인 1, 2형인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SPF)가 높은 30 이상의 자외선차단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SNUA OPINION LEADER

지난 1999년 분자 크기의 물체를 집어서 움직일 수 있는 초정밀 나노 핀셋을 개발해 화제를 모았던 金必立교수. 그에게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근 정부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 기술(B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과 더불어 나노기술(NT)을 21세기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발표하고 우선 2005년까지 10조원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기로 했다. 비단 한국정부뿐만이 아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은 새 세기에 들어 정부주도로 막대한 투자를 나노의 세계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나노기술 혹은 나노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노는 10억분의 1을 의미

나노(nano)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미터와 같이 사용되면, $1\text{nm}=10^{-9}\text{m}$, 즉 10억분의 1미터의 크기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원자의 크기가 약 10^{-10}m 임을 생각하면 이는 원자 10개를 한 줄로 이어 놓은 크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나노과학 혹은 나노기술이라 할 때, 이는 나노미터 크기 정도의 물질을 합성, 조작,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한세기 동안 인류는 마이크로($1\mu\text{m}=10^{-6}\text{m}$)의 세계까지 정복해 왔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전자기기의 경우를 보자. 20세기 초에 등장한 수 센티미터 크기의 진공관은 전기 신호를 능동적으로 처리, 증폭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말미암아, 이를 이용한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과 같은 각종 전자기기의 혁명을 가져왔다. 진공관으로부터 시작한 전자소자의 발전은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를 거쳐 개개의 소자의 크기가 마이크로인 오늘날의 대규모 집적회로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오늘날 최첨단 펜티엄 칩 속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그 크기가 수분의 일 마이크로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전자산업에 있어서 이러한 전자소자의 소형화는 보다 다양한 성능의 빠른 전자소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경험법칙의 하나인 무어의 법칙(Moor's)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실리콘 소자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데 인류가 필요한 시간은 평균 18개월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앞으로 수십 년 이내에 우리가 쓰는 전자소자의 크기는 단지 몇 개의 원자크기로, 즉 나노미터의 세계로 줄어들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도 있다. 물론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할 난관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양자역학적인 효과 매우 커

일반적인 나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리적인 성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매우 커진다. 지난 세기 물리학의 최대 성과 중에

「나노 기술」과 「탄소 나노튜브」

하나인 양자역학은 물질의 아주 작은 영역으로 내려갈수록 그 효과가 커짐이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 크기 물질의 경우, 이러한 양자적인 성질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열적 퍼짐 효과를 피하기 위해 극저온으로 내려가야만 한다. 나노물질의 경우 작은 크기에 의한 양자 속박에 의해 상온에서도 여러 가지 양자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나노물질을 이용하면 상온에서도 양자효과를 이용하여 동작하는 전자소자의 일반화가 가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열요동 현상의 극대화에 의하여 거시계의 열역학 법칙과 다른 상태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새로운 상태는 나노물질이 거시물질과는 다른 물리 화학적 성질을 갖게 한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면, 일례로, 촉매활성이 극대화된 나노 촉매 등이 가능하다.

셋째, 매우 큰 표면적 대 체적비는 앞서 기술한 화학적인 성질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나노물질 내부의 결함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나노물질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결함 없는 완벽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기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기계적인 특성은 나노물질의 단지 전기, 화학적 응용 뿐 아니라 MEMS(micro-electricmechanical systems), 나아가서는 NEMS(nanoelectric mechanical systems) 응용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나노물질 합성의 2가지 방법

이와 같이 큰 응용성 때문에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나노기술을 연구하고 나노물질을 합성 및 제작하고 있다. 나노세계의 물질을 제작 혹은 합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소위 「top-down」방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것은 기존의 반도체소자의 마이크로 제작기술을 확장한 것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거시물질(bulk material)에서 출발하여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거하고, 그 외에 다른 물질을 입히고 다시 그중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경우 이미 전자빔 식각, X-ray 식각 등을 통해 시험적으로는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전자소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확장을 통한 나노미터 크기의 전자소자를 만드는 공정에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가 예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나노미터 크기의 대규모 식각방법, 나노미터에서의 고온 불순물 첨가, 그리고 나노미터의 절연체 개발 등 많은 넘어야 할 기술적인 난관들이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bottom-up」방식이다. 이 방법은 우선 물리적 혹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우선 나노미터 크기의 기본단위 물질을 만든 후, 이를 이용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IBM에서는 아이글러 박사 연구팀이

이미 십여 년 전 주사형 관통형 현미경(STM)을 이용하여 금속표면에서 흡착된 원자를 하나씩 조작하여 양자 간섭효과가 극대화된 나노 구조물을 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번에 많은 나노 소자를 만드는 데는 속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 조립 방법(self assembly)이다. 이 방법은 개개의 원자 혹은 분자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나노블럭」들이 스스로 국소적으로 열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찾아 질서 있게 정렬하여 복합구조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top-down」방식이건 「bottom-up」방식이건 간에, 새로운 나노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발판은 나노 구조물을 구성하는 소재의 개발과 그 특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현재까지 개발되어온 나노소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우선 각종 금속 및 반도체 나노 결정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 화학적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나노 결정은 그 크기가 수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까지 임의로 조절이 가능하며, 그 물리적 화학적 성질의 크기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나노 결정들은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양자점(quantum dot)으로서 그 전기적, 광학적 응용의 가능성 등이 최근의 연구들에 의해 보여진 바 있다.

또한 나노 결정을 이용한 활성 촉매 및 윤활제 등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점(0차원)에 가까운 나노 결정에 대비되어 일차원 물질에 해당하는 또 다른 종류의 나노물질로는 분자사슬이라 불리는 나노 와이어(nano wire)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탄소 나노튜브나 실리콘 혹은 갈륨-비소 나노 와이어 등이 이 종류에 속한다. 이러한 나노 와이어들은 가는 선재로서 크기가 단면으로는 나노미터 정도이지만, 길이 방향으로 수십, 때로는 수백 마이크로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나노 와이어들은 단지 나노미터의 재료로서만이 아니라 나노미터의 세계와 기존의 마이크로의 세계를 잇는 중간적인 재료로도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반도체 성질 지닌 나노튜브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나노 물질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탄소 나노튜브는 1991년 일본 NEC에 있는 이이지마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다. 탄소 나노튜브는 그보다 몇 해 전에 미국 라이스 대학의 스몰리에 의하여 발견된 풀러린(fullerene)이란 물질과 같이 오직 탄소 원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신 물질이다. 우리가 거시세계에서 볼 수 있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있다. 나노의 세계에서는 이 같은 두 가지 탄소 물질의 형태 이외에도 새로운 분자의 형태에 해당하는 풀러린과 나노 와이어에 해당하는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 것이다.

탄소 나노튜브가 많은 나노 과학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 독특한



金 必 立

- 1990년 모교 자연대 물리학과 졸업
- 1992년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 1999년 美 하버드대 졸업(박사학위)
- 1999~2001년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분교 물리학과, 밀러 펠로우
- 美 콜롬비아대 물리학과 조교수

전기적인 성질에 있다. 도체의 성질에 가까운 흑연에 비해, 탄소 나노튜브는 그 원자배열 구조의 섬세한 변화에 따라 도체도 될 수 있고 또한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 매우 독특한 성질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성질은 일차원 전자 에너지 띠구조의 독특함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몇 해 동안 이를 이용한 나노미터 크기의 트랜지스터가 가능함이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여러 연구팀에 의해 경쟁적으로 보여진 바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러한 전자소자가 실재하는 실리콘 소자를 대체하는 양산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기술적인 난관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나노튜브를 이용한 나노미터 크기의 소자가 실험실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전기신호·열 수송능력 탁월

그밖에도 탄소 나노튜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꽤나 많다. 우선 튜브 내 탄소 원자간의 강한 공유결합에 의하여 그 기계적인 인장 강도가 매우 큰 장점이 있다. 그 강도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면서도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대롱처럼 부러지는 대신 휘어질 수도 있다. 그뿐 아니다. 최근 필자의 연구진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탄소 나노튜브는 열 수송에서도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성질을 이용하면, 탄소 나노튜브로 단지 나노미터 크기에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까지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나노과학 기술은 이제 막 그 첫 걸음을 떼어놓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치열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하게도 한국의 나노 과학기술 연구는 세계적인 수준에 결코 뒤쳐지지 않고 있다. 한가지 예로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한 FED(field emission display)소자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그 누구도 지금 나노 과학기술의 성과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친숙히 등장할 때가 10년 뒤가 될지 혹은 그보다 더 늦거나 빠를는지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시기는 더욱 더 늦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리더로서의 책임·의무 더욱 절실하다

ITV 예능팀 姜祥昊 프로듀서

서울대학교! 감히(?)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을 대학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내가 서울대와 서울대인들에 대해 뭔가를 쓴다는 것이 혹여 그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느낌으로 서울대와 서울대인을 평가하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 글을 읽을 여러분의 넓은 해량을 바라면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내가 태어난 곳은 서부 경남의 끝에 위치하고 있는 통영이다. 인구 10만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인지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누구누구네 자식이 서울대에 진학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잔치를 벌이곤 했었다. 그만큼 우리 또래에게 있어 서울대라는 존재는 아무나 꿈꿀 수 없는 소위 수재들이나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다. 그렇게 어린 시절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서울대학교라는

존재는 사회인이 된 지금도 내게는 무척이나 큰 존재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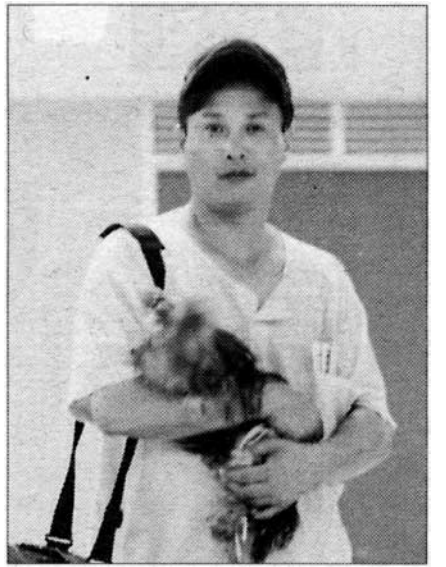
그런데 왜 내가 서울대라는 대학에 대해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걸까? 수재들만 모이는 학교라서? 소위 우리 나라에 선 좋은 학벌을 지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관념 때문일까? 내가 생각하기엔 모두에서도 이야기했듯 우리 나라 수도의 이름을 대학명으로 쓰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 무언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축구 국가대표의 경기를 보면서 그들의 몸동작 하나하나에 환호하고 박수를 보낸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나라의 명예를 위해 뛰고 있는 대표선수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표선수들이 그들이 해야 할 바를 망각한 채 게임을 불성실하게 운영한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존

재가 되고 만다.

서울대 그리고 서울대인 그들이 우리 나라에서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그 중에서도 스트라이커와도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회 전분야에 걸쳐 서울대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만큼 발전시켰다면 너무 지나친 칭찬일까? 그러나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하듯 서울대가 우리 사회에 끼친 밝은 빛만큼 서울대가 이 사회에 드리운 어둠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혹자는 『서울대라는 존재로 인해 한국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병들었다』고 독설을 퍼 불기도 한다. 난 이 말을 서울대가 향유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특권(?)에 걸맞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



는 서울대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물론 일부의 서울대인들이라는 단서를 달겠지만 적어도 스트라이커라면 그에 맞는 골잡이가 되어야 하듯 서울대인 또한 그 위치에 맞는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는 서울대와 서울대인들에게 보다 엄격한 도덕심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리더로서 서울대와 서울대인들이 존재하기에...

서울대, 서울대인들이여! 노블리스 오블리제.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요? 날씬한 쪽인가요 아니면 다소 풍성한 편인가요? 얼굴과 몸매 모두 예쁘면 좋겠지만 한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얼굴인가요 몸매인가요? 다소곳하지만 의존적인 스타일과 활달하고 독립적인 성향 중엔 어느 쪽에 더 끌리시지요?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렵겠지요. 사람의 인연이란 묘한 것이어서 만나고 보면 평소 이상형과는 영 판판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딱히 어떤 스타일이 좋다고보다는 복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겠구요. 정들고 나면 스타일을 따질 게제가 지나버리는 수도 많지요.

분명한 건 시대에 따라 바람직한 혹은 대표적인 여성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남성의 전형도 바뀌지요. 아시겠지만 한때는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나 「람보」의 실베스타 스탈론 같은 근육질 배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이들과는 「타이타닉」의 디카프리오나 「백시칸」의 브래드 피트처럼 곱상한 배우들이 사랑받습니다. 국내로 보면 안성기, 최민수 스타일의 인기가 장동건, 유지태 유형으로 옮겨

겨간 것과 같은 흐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남성의 여성화 및 여성의 남성화를 꼽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도 하구요. 실제 국내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지위도 향상된 게 사실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기업 대부분이 기혼여성의 근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적지 않은 여성들이 퇴사를 면하려 결혼사실을 숨기거나 정식결혼을 미룬 어정쩡한 상태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결혼 후 근무는 물론이고 사내커피가 돼도 괜찮은 오늘날의 상황은 정말이지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적 인물이 아니지요. 더욱이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리플리는 강하다 못해 냉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수록 차갑고 비정해지는 리플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남성과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냉혹해져야 하는 여성의 모습 그 자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가하면 무서운 생존력을 지닌 에이리언이야말로 남성지배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된 「강한 여성」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여성이야말로 에이리언같은 외부의 침입자로 보며 이 영화는 바로 그 같은 남성들의 두려움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에이리언」이 남성보다 강하고 냉철한

여전사 & 섹시 요원 & 엽기공주

상당수 여성은 공개 혹은 비공개적으로 결혼후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만.

2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한 여성의 모습과 역할은 영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에이리언」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리플리라는 여주인공이 에이리언이라는 괴물을 퇴치하는 내용의 공포영화지요. 1979년 리들리 스콧 감독이 처음 만든 뒤 86년에 2편이 나왔고 지난해인 4편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이 화제가 된 건 에이리언이라는 괴물도 괴물이지만 그보다 리플리라는 여전사의 탄생 때문이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악!」 비명만 지르던 여성이 괴물퇴치 영웅으로 바뀌면서 성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는 게 애깃거리지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리플리는 여성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확」 바꿔놓습니다. 리플리는 더 이상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여성의 모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이고 동료를 구출하는 리플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가는 종속

여성의 모습을 그린다면 얼마 전 국내에도 개봉된 「미녀 삼총사」는 터프하지만 섹시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드류 배리모어, 카메론 디아즈, 루시 리우라는 3명의 관능적 여배우를 만능 첩보요원으로 내세워 남성들을 마구 무찌르며 사건을 해결하는 이 영화는, 그러나 치열한 격투중 애인과 휴대전화를 계속하는 여주인공의 사랑스런(?) 면모를 삽입합니다.

「강하되 사랑하는 남성에게 부드럽기 짝이 없는」 존재로 남아있으면 하는 남성들의 희망사항이 투영된 건지, 여성 스스로 「리플리」의 한계를 깨닫고 전략을 바꾼 건지. 아무튼 미녀 삼총사는 리플리처럼 전투적이고 살벌한 모습 대신 「쭈쭈뽕뽕한」 자태로 총칭무진 활약합니다.

그렇다면 올 여름 화제작인 만화영화 「슈렉」의 피오나 공주는 어떨까요? 무시무시한 용이 지키는 탑 꼭대기에 갇혔다가 구출된다는 스토리는 기존 애니메이션

선의 형태를 따르고 있지만 피오나 공주의 태도와 행동은 「공주란 이런 것」이라는 인식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공주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하지도 내숭을 떨지도 않습니다. 백마탄 왕자만을 기다리지도 않구요. 못생긴 초록 괴물 슈렉을 마술에 걸린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물론입니다. 못생긴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매트릭스 발차기로 산적을 무찌르고 개구리와 뱀에게 바람을 넣어 풍선을 만드는 엽기공주지만 밤이면 뽕녀로 변하는 비밀을 털어놓지 못해 고민합니다.

「에이리언」의 리플리가 강인함만으로 승부하려던 20세기말 여성상의 단면이라면 「미녀삼총사」의 섹시요원들은 미모와 전투력을 함께 갖춰야 하는 21세기초 여성상을 비추는 듯합니다. 양쪽 모두 극단적이고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비해 「슈렉」의 피오나 공주는 상당히 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공주는 왕자의 사랑을 얻음으로써 신데렐라가 되려 하지도 않고, 필요하면 매트릭스 발차기도 마다하지 않은 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씩씩하게 현실을 타개하면서 남자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슈렉」에는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그맣고 월새없이 떠돌아대는 당나귀 덩키와 커다란 덩치에 무서운 불을 뿜는 용의 사랑이 그것이지요. 수다쟁이 당나귀가 남자, 엄청난 화력의 용이 여자라는 설정 또한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저렇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깨져가고 있는 현실을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요한 건 어떤 유형이 좋고 나쁘냐 혹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의 역할 변화를 인정하고 서로 동반자적 관계를 인정하는 자세를 지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 정

수 상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장)=최근 미국 International Writers and Artists Association에서 「Best Editor of 2000」상을 수상함.

▲金在恩(54년 師大卒·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8월 5일 안동대에서 안동대총동창회가 수여하는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함. 金동문은 50년 안동사범학교 본과를 졸업함.

▲李相玉(57년 文理大卒·유엔한국협회장)=지난 8월 5일 안동대에서 안동대총동창회가 수여하는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함. 李동문은 53년 안동사범학교 본과를 수료한 바 있음.

▲李景載(61년 商大卒·前중소기업은행장)=지난 8월 27일 감사원에서 모범공직자 표창장을 받음.

▲沈宇永(64년 法大卒·한국국학진흥원장)=지난 8월 5일 안동대에서 안동대총동창회가 수여하는 「모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함. 沈동문은 56년 안동사범 병설 중학교를 졸업함.

▲金秉模(65년 文理大卒·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지난 8월 27일 감사원에서 모범공직자 표창장을 받음.

▲崔尙德(65년 文理大卒·駐오스트리아 대사)=지난 8월 27일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표창장을 받음.

▲沈大平(66년 商大卒·충남도지사)=지난 8월 17일 한국음악평론가협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음악대상(예술 행정상) 수상자로 선정됨.

▲權魯甲(26기 AMP·前민주당 최고위원)=지난 8월 20일 인도 뉴델리 국회의사당 헌정회관에서 데베 고다 前총리로부터 「평화의 사도상」을 수상함.

▲高義善(41기 AMP·농우바이오 회장)=오는 9월 14일 대산농촌문화재단이 수여하는 대산농촌 문화상(첨단농업기술진흥부문)을 수상함.

▲文祐幸(43기 AMP·SK건설 사장)=지난 8월 8일 부산 지하철 2호선 225공구를 성실하게 시공한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음.

▲張興淳(44기 AMP·터보테크 사장·벤처기업협회장)=지난 8월 22일 한국경영학회가 수여하는 제15회 한국경영자대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趙光秀(53년 醫大卒·성남병원 종합검진센터 과장)=최근 아산시 광혜병원 산업보건센터

전문의로 자리를 옮김.

▲韓都淵(53년 師大卒·前청인원장)=지난 8월 25일 싸이브리아 PC방 한남점을 오픈하고 대표에 취임함.

▲具聖會(59년 師大卒·서울보건대 교수)=지난 8월 27일 서울보건대학 제6대 학장에 취임함.

▲趙準熙(60년 法大卒·변호사)=지난 8월 17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金東虎(61년 法大卒·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지난 8월 29일 개막된 제58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넷팩(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장에 선출됨.

▲朴鉉玢(61년 法大卒·前대구대 총장)=지난 8월 9일 재단법인 남도장학회가 운영하는 남도학술 제4대 원장에 위촉됨.

▲金仁植(62년 工大卒·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이사장)=지난 7월 31일 쌍용엔지니어링 회장에 선임됨.

▲宋相現(63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8월 17일 전자거래진흥원에서 열린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제2대 위원장에 선출됨.

편집주간석

특지 장학금이 드리는 말씀

지난 8월 21일 동창회관에서 개최된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洪性大특지장학금을 받은 鄭相鎬(농생대 응용생물학부 4년)군에게서 들은 특지장학금에 대한 소회를 소개한다.

“저는 전주 상산고등학교 출신으로 98년 대학에 입학해 1학년 2학기부터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 7학기동안 특지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상산학원 洪性大이사장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입어 재정적인 걱정없이 4년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에 모교를 떠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여 어려운 후배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다른 선배님들도 특지장학금 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더 많은 후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李健介(63년 法大卒·유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지난 8월 23일 법률자문, 회계·세무, 기업평가, 경영컨설팅, 인수합병 등 기업에 필수적인 지식서비스분야별로 11개 회사들이 모여 발족한 주원전문 지식서비스그룹 회장에 추대됨.

▲李容璟(64년 工大卒·KTF 사장)=지난 8월 1일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유엔의 정보통신 관련 산하기구인 유엔 ICT의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에 선임됨.

▲盧宇燮(64년 法大卒·前감사원 감사위원)=지난 8월 1일 법무법인 정현의 금융조세 관련 고문에 취임함.

▲崔竣明(64년 師大卒·조선일보 논설위원)=지난 8월 3일 한국경제신문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申載仁(65년 工大卒·前한국원자력연구소장)=지난 8월 23일 열린 한국원자력학회 평의원회에서 제17대 학회장에 선출됨.

▲李隆雄(65년 法大卒·특허법원장)=지난 8월 4일 부산고등법원장에 임명됨.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8월 16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노동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장에 선임됨.

▲宋永植(66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지난 8월

26일駐호주 대사에 임명됨.

▲李 樑(67년 法大卒·경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지난 8월 26일 駐아일랜드 대사에 임명됨.

▲金英吉(68년 商大卒·駐상파울루 총영사)=지난 8월 26일 駐베네수엘라 대사에 임명됨.

▲孫相賀(69년 行大院入·前외교통상부 의전장)=지난 8월 26일 駐필리핀 대사에 임명됨.

▲鄭華鉉(70년 師大卒·외교통상부 감사담당 심의관)=지난 8월 26일 駐상파울루 총영사에 임명됨.

▲金賴明(70년 商大卒·현대자동차 부사장)=지난 8월 10일 기아자동차 임시 이사회에서 사장에 선임됨.

▲金南새(70년 畜大卒·경희대 교수·유라시아 필하모니 상임지휘자)=지난 8월 3일 충북 청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선임됨.

▲丁宇聲(71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지난 8월 26일 駐뉴질랜드 대사에 임명됨.

▲韓泰奎(71년 法大卒·외교통상부 본부대사)=지난 8월 26일 駐그리스 대사에 임명됨.

▲尹汝憲(71년 商大卒·前동양메이저투자사업본부장)=최근 중견 시스템 통합업체인 동양시스템즈 대표이사에 선임됨.

▲文倬柱(72년 文理大卒·駐뉴질랜드 대사)=지난 8월 26일 駐미국 공사에 임명됨.

▲鄭榮九(72년 文理大卒·제주도 국제관계 자문관)=지난 8월 26일 駐파라과이 대사에 임명됨.

▲葛政雄(72년 商大卒·대림정보통신 대표)=지난 8월 23일 한국 M&A(인수합병)네트워킹의 제3대 회장에 취임함.



▲南善顯(72년 獸醫大卒·KBS 방송문화연구원 주간)=9월부터 단국대 언론홍보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돼 「방송제작론」을 강의함.

▲趙煥益(73년 文理大卒·前산업자원부 차관보)=최근 한국산업기술재단 초대 사무총장에 취임함.

▲盧在成(73년 新大院卒·중앙방송 교문)=오는 2학기부터 세종대 겸임교수로 임명돼 신문방송경영론을 강의한다.

▲吳基哲(74년 農大卒·駐수단공사)=지난 8월 26일 駐수단 대사에 임명됨.

▲金義基(74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아중동국 심의관)=지난 8월 26일 駐루마니아 대사에 임명됨.

▲李南洙(74년 文理大卒·前외교통상부 공보관)=지난 8월 26일 駐스리랑카 대사에 임명됨.

▲郭成文(76년 人文大卒·MBC 스포츠 사장)=지난 8월 17일 개최된 주총에서 MBC 플러스, MBC 드라마 넷, MBC 게임 등 3개사 사장에 선임됨.

▲金 崙(76년 自然大卒·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수석부사장)=지난 7월 31일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사장에 선임됨.

▲金在禹(76년 自然大卒·前교보생명 사장)=최근 한서신용금고 주총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姜永哲(78년 經營大卒·前데이콤 대외협력실장)=지난 8월 10일 전자상거래 인증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주총에서 사장에 선임됨.

▲白承奎(80년 經營大卒·순천

향대 교수)=최근 전국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임원회의에서 회장에 선출됨.

행사·출간

▲宋仁相(35년 京城高商卒·한국능률협회장)=지난 8월 24일 하얏트호텔에서 산업자원부 張在植(56년 法大卒)장

관, 월드컵조직위원회 鄭夢準(75년 商大卒)위원장을 초청, 제337회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가짐.

▲李榮德(52년 師大卒·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회장)=지난 8월 26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 D-300

전국 자전거 대행진」도착 환영 행사를 가짐.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그룹 명예회장·한중 우호협회장·本會副會長)=지난 8월 22~23일 서울과 광주에

서 故 박인천 창업회장 탄신 100주년 추모행사를 가짐. 또 24일 금호아트홀에서 「한·중 수교 9돌 기념음악회」를 개최함.

▲金始中(55년 文理大卒·과학기술포럼 이사장)=지난 8월 25일 조선호텔에서 千性淳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초청,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장래」를 주제로 포럼을 가짐.

▲張忠植(52년 師大入·단국대



“류증희 동문을 도와주세요”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쓰러져

1997년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류증희 동문이 백혈병으로 쓰러져 현재 수술을 앞두고 병원비 마련에 힘겨워 하고 있다.

모교 재학중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한 바 있는 류동문은 졸업 후 공군학사장교로 군복무 중이었다. 올해 6월 30일자로 제대를 앞둔 상황에서 5월 중순경 불시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 진찰받은 결과 백혈병으로 판정이 났다.

1998년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류동문은 다행히 병세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어서 수술을 하면 상당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며, 9월 말 내지 10월 초순 경에 끝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나 수술비용이 약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류동문의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정치학과 91학번 동기회를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으나 워낙 수술비 액수가 커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후원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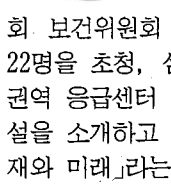
(연락처: 정치학과 사무실 880-6331, 조흥은행 계좌: 308-04-738602 예금주 권백신·정치학과 91학번 동기회장)



이사장)=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세년도어대를 방문, 교수·학생 교환 등 학술교류 증



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가천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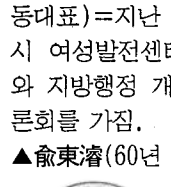
김병원 이사장·의대동창회장·本會 副會長)=지난 8월 14일 태국 국

회 보건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22명을 초청, 심장센터와 서해

권역 응급센터 등 첨단 병원시설을 소개하고 「심장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趙錫俊(57년 大學院卒·모교 명예교수·행정개혁시민연합 공

동대표)=지난 8월 24일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지역사회와 지방행정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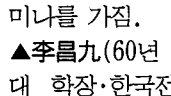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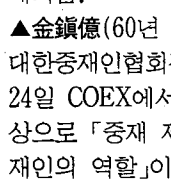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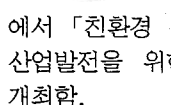


▲俞東濬(60년 農大卒·한국단미사료협회장·羅憲錫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 동창회장)=지난 9월 14일 팔레스호텔

에서 「친환경 단미·보조 사료 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金鎮億(60년 法大卒·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장)=지난 8월 24일 COEX에서 신규중재인 대상으로 「중재 제도 해설 및 중재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昌九(60년 師大卒·한양여대 학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



회장)=지난 8월 24일 중소기업 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전문대학간의 산학협동 사례 발표회」를 개최함.

▲趙南弘(62년 文理大卒·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지난 8월 27일부터 5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 13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지역 총회에 참석함.

▲鮮于仲皓(63년 工大卒·명지대 총장)=지난 8월 27일 중국 베이징대를 방문, 중국 내 한국 고문서 발굴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협약을 체결함.

▲李三悅(63년 文理大卒·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지난 8월 25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한·일 국제이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한·일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本會 副會長·관악회 상임이사)=지난 8월 22일 전북대에서 명예 이학

박사학위를 받음.

▲金聖男(63년 法大卒·반부패특별위원장)=지난 8월 2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짐.

▲朴元勳(64년 工大卒·국제대기환경보전단 체연합회장)=지난 8월 26~31일 웨라톤 워커힐호텔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제12회 대기보전세계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함.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9월 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12회 한·일 건설기술세미나에 참석, 서울과 도쿄 등 「도시형 수해」의 양국의 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토의를 가짐.

▲金重雄(64년 法大卒·현대경제연구원장)=지난 8월 29일 대한상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현안과 시사점」 등을 주제로 제14회 새천년 경영전략 세미나를 가짐.

▲司空壺(64년 商大卒·세계경



제연구원 이사장)=지난 8월 28일 성남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21세기 분당포럼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세계 경제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함.

▲南喆鉉(64년 保大院卒·경산대 보건복지연구소장·한국보건교육협회장)=안식년을 맞아 지난 2월부터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BC대학에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지난 7월 14~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건강증진·보건교육회의에 참석, 「한국의 보건교육사 자격화 제도추진」이라는 논제를 발표함.

▲梁光敏(65년 工大卒·중앙대교수·한국경영학회회장)=지난 8월 22~24일 용평리조트에서 「21세기 한국 기업의 디지털 경영」을 주제로 경영관련 12개 학회 통합 학술대회를 가짐.

▲車培根(65년 師大卒·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한국언론학회 회장)=지난 8월 17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언론개혁의 쟁점과 이론적 조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吳允晉(65년 行大院卒·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총재)=지난 8월 16~17일 6·25전쟁의 진동리 전투와 통영 상륙작전 전승기념·추모제를 가짐.

▲李承培(66년 工大卒·한국표준협회 상근부회장)=지난 8월 22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다카타 입페(高田一平) 일본제조물책임(PL) 전문가를 초청, 「PL 대책과 최고경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富植(66년 文理大卒·교통개발연구원장)=지난 8월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선진 대중교통체계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원 1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가짐.

▲林鍾律(67년 法大卒·중앙노동위원장)=지난 8월 17일 심판회의실에서 노동쟁의 조정, 부당 노동행위 등의 판정 사례를 모은 DB 개통식을 가짐.

▲曹鎭鎭(67년 行大院卒·前체육부 장관·조장학회 이사장)=지난 8월 25일 서울 강북 대학원에서 2001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

卞周浩·成千慶동문 본회 방문

4월에 개국한 RTN방송 소개

지난 8월 22일 동경지부동창회 고문인 卞周浩(53년 文理大卒·RTN방송 회장)동문과 成千慶(64년 法大卒·RTN방송 사장)동문이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卞동문은 최근 동경지부동창회와 오사카(大阪)지부동창회 사이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듯이 다함께 힘을 모아 서울대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야겠다고 조언했다.

卞동문은 현재 일본 동경에서 의료법인 東青梅정형외과 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부인 朴任福(56년 文理大卒)동문, 아들 卞在正(84년 醫大卒)동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편 成사장은 올해 4월 개국한 부동산 전문 케이블 TV인 RTN(Real estate Television Network)방송을 소개하



卞周浩 회장



成千慶 사장

면서 동문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RTN방송(www.rtn.co.kr)은 전국의 부동산 매물·분양 정보, 공매·경매 정보, 리모델링 정보, 재테크 정보, 법률상담 등을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촌경제연구원장)=지난 8월 3일부터 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농업경제연구기관장회의와 미국농업경제학회에 참석함. 또 8월 21~22일 연구원에서 FFTC(아태지역 식량·비료 기술센터)와 공동으로 「환경시대의 농업 및 환경정책 통합」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가짐.

▲崔洋夫(68년 農大卒·농식품신유통연구회장)=지난 8월 23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농축수산물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 혁신 및 표준화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朴性洙(68년 師大卒·전주대총장)=지난 9월 4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를 초청, 「미국의 국가전략과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가짐.

▲李鍾晟(68년 商大卒·신용보증기금 이사장)=지난 8월 16일 본점 국제회의실에서 아세안 국가 중소기업담당 공무원 및 기업인을 초청, 신용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지원관련 세미나를 가짐.

▲韓利憲(68년 商大卒·국가경



영전략연구원장)=지난 8월 22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경기부양인가 구조조정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짐.

▲朴容眩(68년 醫大卒·모교 병원장)=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 지정 당뇨 및 내분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 개소식과 현관식을 가짐.

▲丁海旺(69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지난 8월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IMF 자금상황의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또 28일 「은행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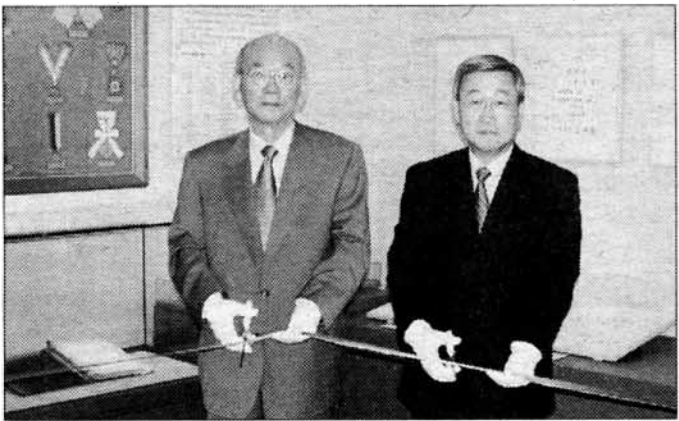
▲李憲錫(70년 文理大卒·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지난 8월 16일 경기의왕시 철도경영연수원에서 「철도안전확보 및 사고조사제도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가짐. 또 8월 18일 경원대에서 「21세기 한국의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申尙澈(70년 法大卒·고전문화회의 회장)=지난 9월 4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외대 이기상 교수를 초청, 「살림살이의 철학」이라는 주제로 제28회 관문논단을 개최함.

▲郭柄善(70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8월 1일 태

모교 의학박물관

權彝赫박사 기증품 특별전 개최



權彝赫박사·朴容眩병원장

모교 병원에 위치한 의학박물관(관장:鄭道彦교수, 舊 대한의원)에서는 지난 8월 20일부터 又岡 權彝赫(47년 醫大卒)박사가 최근 기증한 물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권이혁 박사 기증품 특별전」을 열고 있다.

權박사는 1923년 경기 출생으로 모교 의대를 1회로 졸업했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훌륭한 의학자로 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모교 병원장, 모교 총장, 보건사회부 장관 등 교육계와 의료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은 의과

대학 졸업증서와 각종 학위증서, 모교 병원장 임명장을 비롯해 평생의 이력을 담고 있는 위촉장과 임명장, 상장과 훈장, 강의노트, 육필원고 등 총 93점으로 공인으로 살아온 權박사의 족적이 기증 물품을 통해 의학박물관에 영구히 보존될 예정이다.

의학박물관에서는 8월 20일부터 제3전시실 내에 마련되어 있는 「이달의 기증 유물 특별전」 코너에 權박사의 기증 물품을 전시해 의학박물관을 견학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은 물론 의학을 전공하는 젊은 후학들에게 소중하고 뜻깊은 자료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 방목에서 열린 제1회 교육개혁에 관한 국제포럼에서 「교육개혁의 국가제 설정 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함. 또 교육개발원 창립 29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정책」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가짐.

▲李相哲(71년 工大卒·한국통신 사장)=지난 8월 22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2001 경영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밸류 네트워크 전개 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함.

▲曹道鉉(71년 農大卒·아주대 교수·한국기타산학회장)=지난 8월 25일 동국대 다학관에서 「기타산학제품의 표준화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짐.

▲李榮蘭(71년 法大卒·숙명여대 교수·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지난 8월 24일 양재동 스포타임 회의실에서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짐.



▲姜玟鎬(71년 商大卒·코스닥증권 사장)=지난 8월 24일 단국대 대학원에서 「IMF 한국 프로그램의 전개 과정과 적합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음.

▲姜洙基(72년 農大卒·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지난 8월 16일 로렐리오 그라니움 주한 멕시코대사와 양국 식품과학기술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함.

▲金錫俊(73년 工大卒·이화여대 교수·비전@한국 공동대표)=지난 8월 17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언론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례 정책세미나를 가짐.

▲李鍾徹(73년 醫大卒·삼성서울병원장)=지난 8월 28일 전북 익산 제일의료재단 익산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가짐.

▲崔東煥(74년 工大卒·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AIAA (미항공우주연구원: American Institute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 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함.

▲李壽曙(74년 農大卒·창원대 총장)=지난 8월 17일 창원대 국제회의장에서 중고교 영어교

사들을 대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교사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함.

▲權京鉉(74년 商大卒·교보생명 사장)=지난 8월 23일 인천종합운동장에서 2001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생 육상대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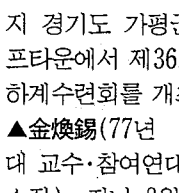
▲尹永寬(75년 文理大卒·모교외교학과 교수·미래전략연구원장)=지난 8월 18일 매경미디어센터 중앙강당에서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安文錫(65년 商大卒)위원장을 초청,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월례세미나를 가짐.

▲李源德(75년 商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지난 8월 23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코스모스홀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짐.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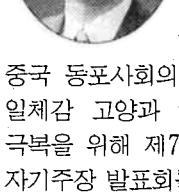
청소년연구소 이사장·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冠岳會理事)=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소재 유스캠 프타운에서 제36회 전국 대학생 하계수련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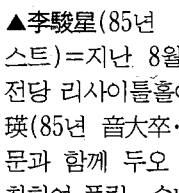
▲金煥錫(77년 社會大卒·국민대 교수·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지난 8월 1일 코엑스에서 「인간 유전정보 이용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李忠範(82년 法大卒·정해복지 이사장·한국변론학회 이사장)=지난 8월 15일 중국 연변대에서 한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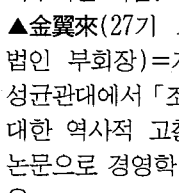
중국 동포사회의 언어, 정서적 일체감 고양과 언어의 이질화 극복을 위해 제7회 한·중 친선 자기주장 발표회를 개최함.



▲李駿星(85년 音大卒·피아니스트)=지난 8월 2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부인 李殷瑛(85년 音大卒·피아니스트)동문과 함께 두오 리사이틀을 개최하여 폴랑, 슈베르트, 드뷔시 등의 작품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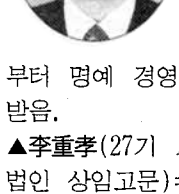
▲鄭修安(94년 音大卒·경원대 강사)=지난 9월 12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닌, 첼시, 마르티누, 보자, 무젠스키 등의 작품으로 플루트 독주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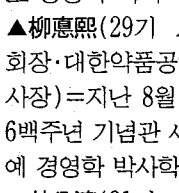
▲金翼來(27기 AMP·안전회계법인 부회장)=지난 8월 25일 성균관대에서 「조세행정 개혁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吳長燮(27기 AMP·前건설교통부 장관)=지난 8월 18일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에 공헌한 업적을 인정받아 공주대로부터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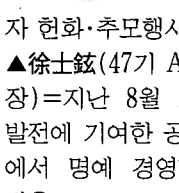
▲李重孝(27기 AMP·안전회계법인 상임고문)=지난 8월 22일 경희대에서 「생명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라는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柳惠熙(29기 AMP·경동제약 회장·대한약품공업협회동조합 이사장)=지난 8월 25일 성균관대 6백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朴益淳(31기 AMP·전쟁기념관장)=지난 8월 28일 방한한 미국 하원 원내총무 톰 딜레이 의원 일행의 미국군 전사



자 헌화·추모행사를 가짐. ▲徐士鉉(47기 AMP·파워콤 사장)=지난 8월 24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순천향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정리=安興燮기자)

新刊

■ 성경엔 없다

—高濬煥 著



경기대 법학부 高濬煥(65년 法大卒)교수가 종교다원주의자의 입장에서 예수의 생애를 복원한 책을 내놓았다.

『예수는 12세부터 30세까지 18년 동안 브라만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비밀형제교단,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등을 두루 섭렵하는 진리에의 순례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지위에 나아가 금의환향한 것이다』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12~30세 사이의 행적을 우선 밝힌 뒤 인간 예수의 삶과 관련된 의문점을 차례로 짚어나간다. 마리아가 과연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는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는 무엇이었나,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연출한 이후 45년간 어떻게 살아갔나. 전통적 기독교인이라면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다.

이 책은 예수를 신앙의 대상

이 아니라 자신만의 절대자와 대화하면서 인격완성에 이른 수행자로 보고 있다. 나아가 기독교의 도그마를 깨뜨리기 위해 인간 예수에게 후세의 기독교인들이 덧씌운 베일부터 벗겨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高濬煥은 기독교, 불교 신앙을 거쳐 각종 수련법을 연마했으며 현재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회장을 맡고 있으며, 신선도 대표로서 「한생명 상생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불지사판·값9,000원>

■ 살맛나는 세상 다녀오기

—崔星民 著



한겨레신문 스포츠레저부 崔星民(80년 師大卒)부장이 계절에 걸맞는 여행지에 대한 각종 여행정보와 함께 생생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여행안내서를 펴냈다.

한겨레신문에서 10여 년간 여행기사를 써 오면서 국내 대표적인 여행 저널리스트로 대

중적인 인기를 모은 崔동문은 평소 『여행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터득하며 자연사랑의 마음을 불돋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자연주의 여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살맛나는 세상 다녀오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가볼 만한 곳 49곳을 모았다. 이 책에서 崔동문은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덕분에 자연의 원초적 생명력이 솟아나고 있는 전남 장성 죽령산 숲, 대밭 사잇길을 걸어보는 멋진 피서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담양 대밭골 등을 여름철 여행지로 꼽고 있다.

「섬 내가 섬이 되는 섬」에는 국내 섬 60여 곳을 담았다. 울릉도, 백령도, 마라도, 독도 등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섬은 물론 가거도, 만재도, 격렬비열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섬까지 두루 다루고 있다. <김영사판·각권 값 11,900원>

■ 내가 가는 여행

—金大觀 外



한국관광연구원 金大觀(91년 農大卒)책임연구원이 모교 농생대 산림자원학과 金星一(80년 農大卒)교수 등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여행 정보를 소개하는 책을 펴냈다.

인터넷 여행 사이트의 종류와 탐색 가이드북, 여행 스타일별 준비 방법 및 온라인 여행 예약 방법과 호텔 예약 방법, 항공과 항공권 구매 방법, 기차 여행을 위한 예약, 짐 꾸러기와 여권, 비자, 관세에 대한 정보 등을 자세하게 수록했다.

저자들이 실제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e-Travel 가이드인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인터넷 초보자를 중심으로 엮은 인터넷 여행 맛보기 부분으로 각종 검색엔진과 여행 사이트를 둘러보고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2부는 온라인 여행예약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좋은 인터넷 여행회사 찾기와 여행상품 검색엔진, 여행일정계획, 호텔 예약하는 방법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3부에서는 짐꾸러기와 안전한 여행법, 여권, 비자, 관세에 대한 온라인 정보는 경험 많지 않은 여행자나 처음 떠나는 여행자들에게는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다. 국제학생증, 국제운전면허, 병무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미래M&B·값 7,000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최준혁(94년 工大卒)군·이은영 양=9월 16일 12시 30분.

기창도(98년 工大卒)군·김영전 양=9월 16일 14시.

최동원(97년 法大卒)군·이양인 양=9월 22일 12시 30분.

임환기(01년 工大卒)군·김경미 양=9월 22일 14시.

김영수(95년 社會大卒)군·이금희 양=9월 23일 12시 30분.

전원발(00년 師大卒)군·김민정 양=10월 13일 14시.

최현석(00년 工大卒)군·김정민 양=10월 14일 12시 30분.

김태훈(98년 工大卒)군·이우영 양=10월 14일 14시.

공과대학

재미 「남캘리포니아지부」 인준



공과대학동창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6월 19일 재미 남캘리포니아지부를 해외지부로 인준했다.

林회장은 지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린 재미총동창회 제10차 평의원회의와 뉴욕·LA지부 등을 방문하여 해

외동문들을 격려했다.

또한 19일 LA소재 Seoul Restaurant에서 공과대학 동창회 남캘리포니아지부 임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부 회기 전달식과 더불어 鄭 晃(68년 工大卒)동문(사진 左)에게 지부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상과대학

재학생 30명에게 장학금 지급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8월 22일 모교 교수회관 본회의실에서 2001년도 2학기 향상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장학생 모두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역군들』이라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학업에 정진하기를 바라며, 추후 좋은 결실을 맺어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다시금 장학금을 수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교 趙東成학장은 『모교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동창회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올해부터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교수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해주는데 대해 우리 교수들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더욱 연구에 힘쓰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경영학과 金健太·金 燁·徐孝周·李宗昊·李泰京·金相亨·朴貞姪·申明錫·安賢民·姜東秀·郭柄佑·金智亨·朴炳柱·朴成鎔·崔永郁, 경제학부 金元東·朴鎮景·裴允卿·申秀泳·

許恩禎·金容煥·朴永秀·朴智元·李志勳·丁炫朱·李昇錫·李允基·崔根浩·崔祐碩·崔振圭 등 재학생 30명에게 총 3천1백63만8천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2002년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급가죽으로 양장제본하고 금박과 금장을 입힌 「포켓용 DIARY」를 제작,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2002년 壬午年의 설계와 구상을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멋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이사, 일반 포함) 여러분께 11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모임에정

미술대학
인터넷 동문전 개최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오는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www.howart.com)를 통해 인터넷 동문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701-8065)

상과대학
10월 3일 등산대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오는 10월 3일 오전 10시 모교 노전극장에서 등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761-2278)

농공학과
10월 6일 정기총회

농공학과동창회(회장 趙範鎬)는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 모교 수원캠퍼스 8동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31-290-2387)

간호대학
10월 16일 학술대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모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졸업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740-8843)

약대35회
졸업20주년 사은회

약대35동기회(회장 鄭鎮玟)는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 모교 교수회관에서 졸업 20주년 사은회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961-0368)

가정대학

내년 4월에 정기총회 갖기로

가정대학동창회(회장 李義淑)는 지난 8월 25일 서초동 소재 「삼정」 식당에서 가정교육과 李仁子·尹英姬·任貞彬·金玉蓮·郭麗順·禹敬子·李英子동문, 가정관리학과 李美淑·申和容·廉明順·崔美蓮·金基珍·崔仁淑·吳明花동문, 식품영양학과 金星姬·申顯淑·李丁桂·朴美貞동문, 의류학과 南宮律林·李善子·金珍淑·南潤子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제3차 간사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오는 10월 21일에 개최되는 서울대총동창회

등산대회에 참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 정기총회는 내년 4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모교 명예교수들에게 새로 작성된 각 기수별 간사회 명부를 보내는 한편, 동창회 주소를 재정비하기 위해 동문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權順玉간사를 대신해 韓錦子동문이 신임 간사로 선임됐으며, 제4차 간사회의는 오는 11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음악대학

동문교향악단 연주회 준비 모임

음악대학동창회(회장 金正吉)는 지난 8월 20일 타워호텔 실버룸에서 姜思俊·崔承俊·睦完洙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본회가 주최하는 제6회 동문교향악단 연주회 개최 건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9월 6·7·9

일 모교 음대 예술관에서 본격적인 오케스트라 연습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金 旆학장과 기타 제반사항에 관해 상호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한편 본회는 지난 8월 10일 동문교향악단 연주회 지원금으로 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상대57회

제200회 기념 골프대회 열어



상대57동기회(회장 禹完植)는 지난 7월 29일 전라북도에 있는 유적지를 답사했다. 부부 동반 모임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은 익산시 소재 미륵사지, 진안군 소재 마이산 등을 둘러보며 여름의 푸르름을 만끽했다.

또한 8월 25일 양지파인C.C에서 제200회 골프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70여 명의 동문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서 朴允錫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張世元동문이 메달리스트에 선정됐다.

법대25회

졸업30주년 행사 개최 예정

법대25동기회(회장 鄭在昊)는 지난 8월 1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10월 20일 교수회관 및 백주년기념관에서 졸업3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많은 동문 및 동문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및 이벤트 사업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으며, 모교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동창회 동호인모임 중 하나인 해외여행회(회장 張俊哲)는 지난 7월30일부터 1주일에 걸쳐 중국 고문화 탐방 여행을 다녀왔다.

30여 명의 동문가족은 중국 서안에서 진시황제비마용, 화청지, 대안탑, 성곽, 비림박물관을, 돈황에서는 막고굴, 백마탑, 위진 시대의 고분, 명사산, 월이천 등을 둘러보았으며, 계림에서는 이강·양사·노적암·목파산 등을 관광했다.

(表)

회비납부 술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1년 7월 8일~2001년 8월 1일·一般: 2001년 7월 13일~2001년 8월 1일〉

회 장 단

▲부회장 李達雨=1백만원
▲부회장 鄭宗澤=50만원

상임이사

▲金圭植대학원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주영돈(64년 文理大卒)=20만원
▲임조홍(64년 商大卒)=20만원
▲임백빈(77년 農大卒)=20만원
▲하규섭(86년 醫大卒)=20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정두언⁸⁰

◇看護大學

▲박문희⁶³ ▲양은숙⁵⁴

◇工科大学

▲강호익⁶⁴ ▲김광옥⁶¹ ▲김규갑⁶¹
▲김덕재⁵⁹ ▲김동철⁵⁹ ▲김병린⁵⁹
▲김봉일⁶⁴ ▲김영철⁶³ ▲김원배⁵⁹
▲김유재⁶⁷ ▲김창세⁶⁵ ▲김창수⁶³
▲김전옥⁵⁹ ▲김태준⁶¹ ▲문광순⁶⁴
▲박영무⁶⁰ ▲박태권⁵⁹ ▲박태원⁷⁷
▲서립규⁶¹ ▲신국범⁵⁶ ▲신현국⁶⁸
▲심정섭⁴⁹ ▲오옥수⁷² ▲유병철⁴⁷
▲윤충중⁶⁴ ▲이박일⁷⁰ ▲이부섭⁶⁰
▲이승관⁷¹ ▲이용경⁶⁴ ▲장홍규⁵⁸
▲조래승⁶⁰ ▲조일제⁵⁶ ▲최상오⁶⁷
▲최운재⁵⁶ ▲황해근⁶⁰

◇農科大学

▲김영섭⁶⁹ ▲오봉국⁵² ▲유원형⁷⁴
▲유태종⁶² ▲유행준⁷⁸ ▲이상영⁶⁹
▲장석호⁷⁴ ▲최해원⁷⁴

◇文理科大學

▲강두식⁵¹ ▲강현두⁶¹ ▲김대기⁶⁹
▲김용호⁷⁵ ▲김주필⁶⁷ ▲김태길⁴⁷
▲류종탁⁶¹ ▲박경석⁵⁹ ▲박용옥⁵⁹
▲서옥식⁷³ ▲신학용⁷⁵ ▲윤상철⁶¹
▲이규원⁵¹ ▲이두중⁵¹ ▲이정운⁵⁸
▲전용성⁵⁰ ▲최정호⁵⁷

◇美術大學

▲조승환⁶³

◇法科大学

▲강대신⁶⁷ ▲강태중⁵⁶ ▲고왕석⁶¹
▲김기천⁶⁵ ▲김대환⁶⁵ ▲김동훈⁶¹
▲김봉환⁵⁰ ▲김영재⁶⁵ ▲김용호⁴⁴
▲김원태⁶⁵ ▲김인호⁶⁶ ▲김재구⁷²
▲김재덕⁷⁷ ▲김종대⁷² ▲김준섭⁶⁹
▲김진무⁶⁴ ▲김찬진⁶³ ▲김현산⁵⁸
▲명로승⁶⁹ ▲박용수⁷² ▲박태웅⁶⁴
▲배 도⁵⁷ ▲서광하⁶⁰ ▲송진훈⁶⁵
▲신봉식⁵⁸ ▲신흥범⁵⁸ ▲심상명⁶⁴
▲양영준⁷⁷ ▲오동섭⁶⁹ ▲오영수⁵⁵
▲우성만⁶⁰ ▲윤보옥⁷⁰ ▲이교림⁷⁷
▲이동성⁶⁶ ▲이영옥⁵⁶ ▲이영재⁵⁴
▲이재영⁶² ▲이종상⁵⁸ ▲이해원⁵⁵
▲이회창⁵⁷ ▲임휘운⁶⁷ ▲장재식⁵⁶
▲정명택⁶⁴ ▲정인규⁵⁷ ▲조남돈⁷⁶
▲조택근⁵⁸ ▲주진학⁵⁸ ▲황병호⁵⁸
▲황주명⁶² ▲황철수⁶⁵

◇師範大學

▲공구영⁵⁸ ▲권상철³⁵ ▲김관영⁵⁵
▲김기곤⁵⁶ ▲김병준⁷² ▲박봉배⁵³
▲신문섭⁶⁴ ▲우세홍⁶⁵ ▲이유태⁶³
▲전성택⁵⁸ ▲조 훈⁵⁵ ▲진명자⁴²

◇商科大學

▲강정구⁶⁶ ▲권영부⁶⁴ ▲김광진⁶⁰
▲김덕기⁵⁶ ▲김영석⁶⁰ ▲김진환⁶¹
▲박 철⁶⁸ ▲박상은⁶¹ ▲박중진⁷⁵
▲박해룡⁶³ ▲서 행⁶⁴ ▲송국현⁶²
▲신동현⁶⁰ ▲우종일⁶⁹ ▲유석홍⁶⁵
▲이기호⁷⁰ ▲이동원⁵⁵ ▲이종성⁶⁸
▲임응원⁶⁴ ▲임조홍⁶⁴ ▲전영수⁵⁵
▲전장원⁶⁰ ▲조 순⁴⁹ ▲최홍락⁶¹

◇獸醫科大學

▲김동훈⁶⁰ ▲김선중⁶⁶ ▲김택수⁵⁹
▲오영우⁵⁷ ▲차중상⁶⁰ ▲최성호⁶¹

◇藥學大學

▲김낙두⁵⁷ ▲김태운⁵⁹ ▲박사룡⁶⁸
▲박승규⁶³ ▲서석수⁵³ ▲서한익⁶⁶
▲신박일⁶⁴ ▲유충규⁷⁴ ▲이규호⁶⁵
▲이규환⁵⁶ ▲조정식⁶⁶

◇音樂大學

▲유영명⁵⁴

◇醫科大學

▲김성권⁷⁴ ▲김성덕⁷¹ ▲김종환⁵⁷
▲김형주⁶¹ ▲박문희⁵⁶ ▲이부영⁵⁹
▲이상원⁶¹ ▲이성준⁶¹ ▲이항진⁵⁰
▲장환식⁷⁹ ▲조병규⁷⁰ ▲한승수⁶²

◇齒科大學

▲강태성⁷⁷ ▲김 성⁶⁶ ▲김세진⁷³
▲김용운⁶⁸ ▲유형식⁶⁵ ▲이수구⁷²
▲이형규⁶¹

◇經營大學院

▲김한준⁹¹

◇保健大學院

▲정근호⁷²

▲김미배⁷⁸

◇新聞大學院

▲김기도⁷²
▲안성균⁷³

◇行政大學院

▲최운지⁶⁴

일 반

◇人文大學

▲김선아⁹⁷ ▲김세한⁹⁰ ▲김정현⁸⁸
▲김향숙⁸⁶ ▲박태영⁷⁸ ▲배종규⁸¹
▲석종욱⁷⁷ ▲신중진⁹⁶ ▲안대영⁹⁶
▲윤병우⁸⁸ ▲이강근⁸⁵ ▲이강록⁹³
▲이동일⁸⁹ ▲이장욱⁹¹ ▲전인한⁸⁷
▲최지녀⁹⁰ ▲홍재범⁹⁰

◇社會科學大學

▲강병철⁹⁰ ▲강호철⁸⁷ ▲곽세현⁸⁴
▲권진호⁹⁰ ▲김 호⁸⁰ ▲김경렬⁹⁵
▲김관중⁸⁸ ▲김부성⁷⁷ ▲김성준⁷⁶
▲김영각⁹² ▲김용윤⁹⁵ ▲김윤종⁸²
▲김태환⁸⁷ ▲김희철⁸⁸ ▲문홍후⁸³
▲박 철⁸⁷ ▲박관표⁸⁷ ▲박동영⁸⁵
▲박승희⁹⁰ ▲박진선⁸⁹ ▲박철순⁹⁴
▲배현기⁸⁸ ▲부윤경⁸³ ▲서배수⁹¹
▲선중규⁹⁹ ▲성명재⁸⁷ ▲성상렬⁸⁵
▲손승모⁹⁴ ▲손정화⁹¹ ▲송기호⁸⁹
▲송명달⁸⁸ ▲송재조⁹¹ ▲신철식⁷⁷
▲안선아⁸⁹ ▲양세련⁹⁷ ▲육주영⁸⁴
▲우태영⁸¹ ▲위경우⁸⁵ ▲이상원⁹⁶
▲윤선기⁸⁷ ▲윤재혁⁸⁸ ▲이교욱⁹⁰
▲이기만⁸⁵ ▲이기선⁹⁰ ▲이상연⁹²
▲이재선⁹⁷ ▲이정진⁸¹ ▲이찬우⁹⁰
▲이철승⁸⁴ ▲이철취⁷⁶ ▲이한방⁸¹
▲임일섭⁸⁷ ▲임진석⁸⁸ ▲장병걸⁸⁹
▲장성호⁹⁰ ▲장재혁⁹⁰ ▲장진우⁹⁵
▲장현성⁸⁹ ▲전성재⁹⁹ ▲정 도⁹²
▲정동훈⁹⁰ ▲정병오⁹⁶ ▲정진영⁸¹
▲조동환⁸⁶ ▲조용래⁸⁶ ▲조정호⁹⁵
▲조해찬⁹⁶ ▲조현일⁸⁷ ▲주영진⁸⁵
▲주인식⁹⁶ ▲최종선⁸⁹ ▲태효섭⁹⁶
▲한건표⁸⁰ ▲허동호⁸⁹

◇自然科學大學

▲강위창⁹³ ▲김종우⁸⁹ ▲김철호⁷⁸
▲박광식⁷⁸ ▲서혁수⁹⁷ ▲송태영⁹¹
▲안진호⁹⁵ ▲양재현⁷⁶ ▲윤병배⁷⁷
▲이형구⁹³ ▲정인채⁸⁶ ▲조승제⁹¹
▲주창경⁸³ ▲최종민⁸⁹ ▲허원희⁸⁶
▲황대성⁷⁸

◇家政大學

▲김정주⁸⁰ ▲박보현⁸⁷ ▲유효선⁷⁴
▲이명희⁸⁰ ▲이미세⁷⁶ ▲이선영⁸²
▲이진영⁷⁷ ▲임화재⁸³ ▲현은강⁸⁶
▲황혜신⁸⁸

◇看護大學

▲김소연⁹⁶ ▲박혜옥⁷⁹ ▲이경희⁸⁰

▲이명혜⁷⁹ ▲이영현⁷⁴ ▲허성이⁸⁷
▲홍미나⁸²

◇經營大學

▲김낙형⁹⁰ ▲김원재⁸⁹ ▲김정환⁷⁸
▲김준호⁸⁸ ▲김충훈⁸⁹ ▲마영남⁷⁶
▲박세환⁸⁹ ▲서진식⁹⁴ ▲양지훈⁹⁵
▲윤주환⁸⁹ ▲이광재⁸⁸ ▲이민영⁸⁶
▲이승호⁹⁴ ▲이용석⁸⁵ ▲이혁주⁷⁶
▲이호선⁷⁹ ▲하태주⁹¹

◇工科大学

▲강기중⁸¹ ▲강무진⁷⁷ ▲강상규⁹⁵
▲강성수⁶¹ ▲강홍열⁵² ▲공창영⁸⁹
▲곽순섭⁷² ▲구본승⁶⁶ ▲권수봉⁷⁹
▲김 석⁷⁷ ▲김강수⁷⁴ ▲김관식⁴⁹
▲김규홍⁹⁵ ▲김균섭⁷⁴ ▲김기만⁸³
▲김남형⁸⁷ ▲김내현⁷⁸ ▲김능수⁶⁵
▲김대호⁷² ▲김덕태⁷⁷ ▲김민세⁶³
▲김상용⁸² ▲김서주⁷⁹ ▲김선민⁹⁷
▲김선준⁸⁰ ▲김세환⁸⁸ ▲김영국⁷⁷
▲김영진⁷⁶ ▲김용희⁹⁵ ▲김유경⁷²
▲김윤수⁷⁹ ▲김인회⁷⁸ ▲김재만⁷⁸
▲김재일⁸¹ ▲김정기⁶⁸ ▲김정중⁶²
▲김종선⁹³ ▲김종신⁷² ▲김주철⁹⁰
▲김준언⁷⁴ ▲김철수⁷⁰ ▲김택중⁸⁸
▲김택환⁴⁸ ▲김한석⁸² ▲김현진⁶⁵
▲김혜수⁷¹ ▲김홍재⁸⁷ ▲김휘중⁷¹
▲나형주⁷⁷ ▲남익원⁷¹ ▲남일순⁸⁵
▲남창희⁷⁷ ▲노원섭⁵⁹ ▲라병주⁶⁶
▲류상진⁹⁷ ▲문영환⁷⁹ ▲박관철⁷³
▲박도성⁷⁸ ▲박병욱⁶⁷ ▲박상윤⁷⁷
▲박성일⁷¹ ▲박소륜⁹⁹ ▲박시동⁶⁶
▲박신지⁶⁴ ▲박영복⁸⁷ ▲박우용⁴¹
▲박인구⁸⁶ ▲박인근⁷⁹ ▲박재현⁸⁷
▲박종명⁷⁹ ▲박종일⁶¹ ▲박주환⁷¹
▲박준영⁹⁷ ▲박춘규⁷⁷ ▲박태근⁸¹
▲박현진⁷⁸ ▲박홍근⁸⁵ ▲배상수⁹³
▲백광필⁷⁹ ▲백승욱⁶² ▲백원중⁹⁷
▲서용성⁹⁵ ▲서종철⁶⁵ ▲서진유⁹⁵
▲석동근⁷⁸ ▲선희복⁶⁴ ▲성기영⁶⁸
▲성봉주⁷⁵ ▲소봉영⁵⁶ ▲손태운⁹¹
▲송동익⁷⁸ ▲송윤석⁶⁷ ▲송인행⁸⁰
▲송재환⁸⁷ ▲송지오⁷⁰ ▲송창록⁹¹
▲신경호⁶⁵ ▲신상호⁵⁸ ▲신재홍⁸¹
▲신준혁⁹² ▲신지수⁴⁵ ▲신충섭⁷²
▲신현섭⁷⁷ ▲신현식⁶⁴ ▲심봉섭⁸⁸
▲심영섭⁸⁵ ▲심중식⁸¹ ▲안병훈⁷²
▲안상춘⁷² ▲안준영⁶⁶ ▲양성석⁹⁰
▲양홍모⁶⁸ ▲어 준⁵⁵ ▲어경건⁷¹
▲오동원⁸¹ ▲오세현⁶³ ▲오승중⁷⁴
▲오정섭⁸⁹ ▲오정일⁶⁸ ▲오종혁⁹⁴
▲오형식⁷³ ▲우상선⁷² ▲우정민⁸⁶
▲유남일⁹⁵ ▲유명식⁶² ▲유병태⁸⁰
▲유영면⁷² ▲유종철⁷⁰ ▲유해용⁷⁸
▲윤 문⁶⁷ ▲윤명환⁷³ ▲윤병주⁶⁷
▲윤정호⁷⁴ ▲윤창렬⁷⁷ ▲윤한욱⁶⁹
▲이관철⁵⁵ ▲이기원⁷² ▲이낙영⁷⁰
▲이달호⁸¹ ▲이동규⁶³ ▲이동호⁷²
▲이명규⁹⁷ ▲이명선⁸⁰ ▲이명호⁹⁶
▲이민수⁹⁹ ▲이병길⁹⁰ ▲이병호⁶⁷
▲이상은⁸⁰ ▲이상홍⁶⁰ ▲이상훈⁹⁴
▲이상훈⁹⁷ ▲이성률⁷² ▲이성은⁷⁸
▲이승훈⁸⁴ ▲이영택⁸⁷ ▲이용각⁹¹
▲이용우⁶⁸ ▲이용훈⁷⁸ ▲이원세⁷⁵

▲이은경⁷⁰ ▲이인행⁷⁸ ▲이재윤⁹²
▲이정로⁷⁶ ▲이정열⁸³ ▲이종수⁷³
▲이종철⁸¹ ▲이준모⁵⁸ ▲이진용⁹⁶
▲이충훈⁸⁵ ▲이필상⁷² ▲이해균⁹⁵
▲임규원⁶⁵ ▲임문규⁷² ▲임배수⁷¹
▲임왕규⁷⁷ ▲임지택⁹² ▲임채영⁸⁰
▲임태균⁹⁵ ▲장기석⁹⁵ ▲장동근⁶²
▲장호진⁹³ ▲장효성⁶⁶ ▲전구현⁵⁸
▲전창영⁷² ▲정경수⁵⁶ ▲정광용⁶⁴
▲정동섭⁶⁸ ▲정면수⁶⁵ ▲정산용⁷³
▲정승환⁹⁶ ▲정승환⁹⁶ ▲정원원⁵⁶
▲정운용⁹⁰ ▲정중기⁸² ▲정태용⁶⁹
▲조광재⁷² ▲조성제⁷⁵ ▲조영석⁷¹
▲주성문⁹⁶ ▲주수일⁶⁵ ▲천유식⁶⁹
▲최규현⁹⁴ ▲최기일⁶⁶ ▲최남일⁸⁰
▲최병국⁹⁷ ▲최병길⁷⁹ ▲최석림⁸¹
▲최세진⁹⁷ ▲최영명⁷⁶ ▲최용훈⁸⁷
▲최웅렬⁶⁴ ▲최응호⁶⁰ ▲최재열⁷³
▲최정우⁸⁸ ▲최준민⁸¹ ▲최준식⁷⁵
▲최창학⁷⁰ ▲허원형⁵⁶ ▲허종필⁷⁷
▲홍원표⁵² ▲홍태선⁶⁵ ▲황규렬⁵⁷
▲황달연⁸³ ▲황문익⁵⁹ ▲황석희⁹¹
▲황택수⁷⁸

◇農科大学

▲강예목⁵⁷ ▲강인석⁸⁵ ▲권오규⁷⁹
▲권태걸⁶³ ▲김경수⁵⁵ ▲김상훈⁸⁸
▲김세창⁶⁴ ▲김승철⁶⁸ ▲김재진⁶⁵
▲김정구⁸⁸ ▲김진철⁵⁵ ▲김철수⁶⁷
▲김태호⁷⁶ ▲나찬희⁷⁷ ▲노상하⁷⁰
▲박동우⁷⁴ ▲박병태⁸² ▲박승무⁵⁸
▲박용화⁵⁵ ▲박응봉⁵⁴ ▲박태식⁵⁰
▲서상교⁸¹ ▲손병암⁷³ ▲손세호⁵⁷
▲손종오⁹⁹ ▲신제성⁶⁵ ▲신태식⁶⁵
▲오태광⁷⁸ ▲오훈일⁷¹ ▲우기원⁶⁰
▲유명하⁶⁶ ▲윤인화⁵⁹ ▲이경희⁵⁸
▲이광식⁶³ ▲이명희⁷¹ ▲이시규⁸⁰
▲이종호⁵⁶ ▲이지원⁸⁷ ▲이현범⁶¹
▲임광환⁵⁹ ▲임노현⁶³ ▲임백빈⁷⁷
▲전구원⁸¹ ▲전남수⁵⁸ ▲정 군⁸⁴
▲조준기⁵⁸ ▲조한욱⁵⁷ ▲주기석⁷⁸
▲주명준⁶⁶ ▲주정희⁷¹ ▲지근진⁶⁴
▲최병갑⁹⁰ ▲최상호⁶⁹ ▲최상호⁶⁹
▲최영주⁸² ▲최치영⁸⁸ ▲최태동⁷⁵
▲한성식⁶⁴ ▲한해룡⁶⁰ ▲허 건⁹⁹
▲황재순⁷⁴

◇文理科大學

▲계창호⁵⁴ ▲고인석⁶⁰ ▲공영일⁶¹
▲곽종홍⁶⁸ ▲구자강⁷² ▲권혁웅⁶³
▲기건호⁷⁰ ▲김경두⁷⁵ ▲김광태⁷⁵
▲김구용⁶³ ▲김근전⁶⁵ ▲김동필⁶⁸
▲김부남⁷⁰ ▲김상준⁶⁷ ▲김석준⁴⁸
▲김영도⁵⁶ ▲김영식⁶⁸ ▲김영인⁶⁸
▲김윤섭⁵⁸ ▲김인호⁴⁸ ▲김일철⁵⁷
▲김재성⁵⁶ ▲김정기⁶³ ▲김형수⁵²
▲김호진⁵⁷ ▲김효근⁵⁷ ▲김희영⁵⁶
▲나학진⁵⁷ ▲박기안⁷² ▲박명원⁶¹
▲박영순⁷⁵ ▲박종민⁵⁸ ▲박하진⁷¹
▲박해용⁶⁸ ▲서남수⁷⁵ ▲서일환⁶⁰
▲소광섭⁶⁸ ▲송기원⁵¹ ▲송소영⁷²
▲송현달⁶⁰ ▲심경보⁶⁵ ▲안운선⁵⁹
▲오재희⁵⁷ ▲오홍자⁶⁸ ▲유민수⁶¹
▲유해문⁶⁸ ▲유희정⁵³ ▲윤용진⁵⁹
▲은희준⁶⁸ ▲이덕홍⁶⁰ ▲이득산⁶¹

▲이명승⁵⁰ ▲이민호⁶² ▲이성우⁶⁸
▲이승훈⁶⁹ ▲이시영⁵⁹ ▲이용숙⁷⁵
▲이윤오⁷⁰ ▲이정순⁶⁴ ▲이종인⁵⁸
▲이주형⁶⁹ ▲이항주⁶⁰ ▲임공례⁵⁸
▲임한조⁷¹ ▲장윤걸⁴⁸ ▲장인식⁶⁵
▲전우성⁵⁸ ▲전종현⁶⁰ ▲전해종⁴⁷
▲정귀래⁶⁷ ▲정기돈⁵⁵ ▲정만조⁶⁹
▲정병일⁶⁹ ▲정서웅⁶⁶ ▲정연채⁷³
▲정창렬⁶³ ▲조 만⁵⁷ ▲조기상⁶²
▲조철화⁵⁵ ▲조화수⁷¹ ▲주강수⁶⁸
▲차미례⁷² ▲채영복⁵⁹ ▲최상규⁶⁷
▲최희조⁷¹

◇美術大學

▲강대운⁶⁰ ▲권지혜⁹⁷ ▲김경애⁷²
▲김서봉⁵⁴ ▲김정석⁹³ ▲김춘이⁶⁵
▲김현석⁹⁹ ▲민경우⁷⁰ ▲민재영⁹⁰
▲백 민⁶⁷ ▲서원영⁹² ▲손문자⁶⁶
▲송인옥⁸⁵ ▲안소연⁹³ ▲유병수⁶³
▲윤봉선⁸⁹ ▲윤형자⁶⁵ ▲이상은⁹⁰
▲이영진⁶⁰ ▲허 진⁸⁵ ▲홍동식⁵¹
▲홍성문⁵⁴

◇法科大學

▲가문일⁹⁵ ▲강재철⁸¹ ▲고흥달⁷²
▲곽영철⁷¹ ▲권순탁⁹¹ ▲김경선⁸²
▲김경연⁹⁶ ▲김경중⁷⁷ ▲김관재⁷⁵
▲김기수⁵⁶ ▲김용길⁷³ ▲김유미⁸²
▲김재임⁵⁸ ▲김재현⁵⁶ ▲김정렬⁵⁸
▲김주일⁵⁸ ▲김중앙⁶⁹ ▲김태용⁸⁶
▲김학래⁷¹ ▲김형두⁸⁸ ▲김형표⁶⁰
▲김홍천⁶⁴ ▲도세경⁶⁵ ▲류수열⁷⁹
▲문대탄⁶¹ ▲문원주⁶⁰ ▲민예순⁶¹
▲박대운⁶⁵ ▲박동현⁷⁵ ▲박송규⁵⁸
▲박주은⁴⁷ ▲박창래⁵⁹ ▲박천서⁶⁰
▲박형서⁵⁸ ▲배기열⁸⁶ ▲백영철⁷²
▲백형구⁵⁹ ▲서태운⁶⁴ ▲신 신⁵⁹
▲신상철⁷⁰ ▲신용주⁶⁵ ▲신현욱⁷⁰
▲신호철⁶⁵ ▲심장수⁷⁴ ▲연광석⁹¹
▲염인섭⁶⁷ ▲오석준⁸⁴ ▲유동렬⁵⁴
▲유철희⁵⁶ ▲윤정경⁵⁹ ▲윤정수⁸⁷
▲윤정수⁸⁷ ▲윤형한⁷⁰ ▲이기택⁸²
▲이민재⁷⁶ ▲이성호⁸² ▲이원범⁸⁸
▲이임수⁶⁴ ▲이재원⁶¹ ▲이태운⁷²
▲이태일⁶⁸ ▲이한성⁶⁰ ▲장태규⁶⁰
▲정 열⁶² ▲정갑주⁷⁷ ▲정용달⁶⁵
▲정종현⁶⁶ ▲조수현⁷⁴ ▲조용석⁵⁸
▲조해섭⁷⁵ ▲조현우⁷² ▲주덕인⁷⁰
▲지관엽⁷⁹ ▲진영채⁷⁶ ▲최귀인⁶⁰
▲최성주⁸⁸ ▲최창무⁶⁷ ▲하성대⁶²
▲한대운⁷⁴ ▲한덕수⁵⁹ ▲한명철⁷⁷
▲현순도⁷⁰ ▲홍광식⁷¹ ▲황영목⁷⁴

◇師範大學

▲강송식⁶⁴ ▲고남호⁷³ ▲권상필⁷⁵
▲권영목⁶⁸ ▲김규영⁴⁴ ▲김노중⁶⁰
▲김덕빈⁴⁹ ▲김명순⁷⁷ ▲김민정⁶⁷
▲김영수⁷⁴ ▲김영웅⁷³ ▲김우탁⁶¹
▲김재철⁹² ▲김종식⁷⁷ ▲김주화⁶⁹
▲김중곤⁷¹ ▲김필순⁶² ▲김흥태⁷⁷
▲나민주⁶⁹ ▲나상준⁹² ▲문일성⁶⁷
▲박경현⁶⁸ ▲박상필⁶¹ ▲박승용⁸⁰
▲박찬중⁷⁷ ▲박충모⁸³ ▲박홍식⁸³
▲박희관⁷¹ ▲서태열⁸⁴ ▲손영국⁷⁴
▲송정수⁷⁵ ▲신승윤⁶¹ ▲안억수⁶⁵
▲양태일⁶³ ▲양희산⁷⁴ ▲염도균⁶⁵
▲오명숙⁴⁰ ▲오성종⁷⁰ ▲우성기⁸¹
▲유명선⁷¹ ▲유병석⁸⁴ ▲유예근⁵⁶
▲유정숙⁶⁸ ▲윤동선⁶³ ▲윤석원⁷⁵
▲윤송자⁴¹ ▲윤정혜⁶³ ▲이국섭⁸²
▲이기방⁶³ ▲이병필⁹³ ▲이보식⁵⁷
▲이석주⁶⁰ ▲이성진⁵⁷ ▲이수형⁶⁴
▲이순녀⁴⁰ ▲이영선⁷⁵ ▲이재관⁷¹
▲이재근⁴³ ▲이정화⁸⁸ ▲이종만⁵⁷
▲이중석⁶³ ▲이찬근⁷⁴ ▲이재규⁷³

▲이희숙⁶⁵ ▲임형진⁵⁵ ▲장동우⁷⁶
▲전병일⁷³ ▲정경도⁷⁵ ▲정광수⁷⁷
▲정동기⁷⁵ ▲정신화⁷⁵ ▲정영호⁵⁶
▲정희섭⁸² ▲조규홍⁶⁴ ▲조익선⁴⁰
▲조정기⁶⁷ ▲조정휘⁶⁵ ▲최광주⁰
▲최근무⁵² ▲최성신⁸⁶ ▲최용섭⁵⁸
▲최익규⁵⁶ ▲홍길표⁷³ ▲홍석필⁵⁸
▲홍성흙⁵² ▲황 주⁸⁹ ▲황종근⁸⁰

◇商科大學

▲강유식⁷¹ ▲고인석⁶⁴ ▲고창석⁷³
▲곽 규⁵⁶ ▲권동수⁵⁸ ▲권혁방⁶⁰
▲김방지⁶² ▲김재진⁵⁸ ▲명영삼⁶⁰
▲박용대⁶³ ▲박용선⁵⁶ ▲박재준⁶⁷
▲박효민⁷¹ ▲배종덕⁷⁴ ▲설 유⁷¹
▲송규현⁶⁵ ▲신선기⁷⁸ ▲양재욱⁵⁷
▲양재하⁷⁴ ▲오남호⁶¹ ▲우영호⁷⁵
▲유명식⁶⁴ ▲윤정희⁵⁸ ▲이강천⁷⁵
▲이동재⁵⁸ ▲이병섭⁶⁴ ▲이선남⁷¹
▲이진명⁶⁹ ▲이춘원⁷¹ ▲이호철⁶¹
▲장학진⁵⁷ ▲전영호⁶¹ ▲정봉수⁷⁰
▲정연덕⁵⁸ ▲정용팔⁵² ▲조영제⁷²
▲조원구⁶⁸ ▲조은구⁵⁸ ▲최재혁⁵³
▲한장욱⁶⁸ ▲현석두⁶¹ ▲홍순태⁶⁰
▲홍용찬⁷² ▲황규백⁶⁹ ▲황정길⁶⁶

◇獸醫科大學

▲김동욱⁹² ▲김석호⁶⁴ ▲김찬규⁶⁷
▲나길현⁶⁵ ▲나종극⁵⁸ ▲명상돈⁷⁸
▲박호인⁷⁵ ▲서승창⁵⁸ ▲소병재⁸⁵
▲이규남⁶¹ ▲이병익⁷⁸ ▲이종경⁷⁹
▲이종성⁸⁶ ▲조광영⁵⁸ ▲한정희⁸³
▲홍인선⁸⁵

◇藥學大學

▲강정훈⁶⁷ ▲김이룡⁸⁹ ▲김병규⁷²
▲김영택⁶⁴ ▲김우영⁷¹ ▲김재백⁵⁶
▲박경욱⁵⁶ ▲박기숙⁹⁰ ▲박정희⁵⁵
▲백연희⁸¹ ▲백우현⁵⁹ ▲이석목⁷⁰
▲이세복⁶⁸ ▲이수정⁹⁴ ▲이영태⁷⁸
▲이혜정⁹³ ▲정구충⁸⁰ ▲정상철⁵⁶
▲정인조⁵⁵ ▲정진기⁵⁷ ▲정철영⁷²
▲조남주⁶⁵ ▲조미정⁹¹ ▲전승훈⁷⁵

◇音樂大學

▲곽인숙⁷⁷ ▲권혁영⁷⁵ ▲김일섭⁸⁴
▲김대환⁹³ ▲김미자⁶¹ ▲김민희⁸⁴
▲김성용⁸² ▲김영경⁶⁶ ▲김영숙⁵²
▲김영숙⁸⁹ ▲김은해⁵⁸ ▲김재미⁸⁸
▲김혜림⁸² ▲나경미⁸⁹ ▲노주하⁸⁹
▲문신희⁷⁸ ▲박세경⁸³ ▲박을미⁷⁸
▲박정욱⁸² ▲배정인⁹⁰ ▲서진희⁸⁹
▲설영아⁷⁹ ▲송현정⁹⁰ ▲신효철⁷³
▲양경숙⁷⁹ ▲오미혜⁷⁵ ▲오선영⁸⁰
▲원보연⁹⁵ ▲윤소영⁷⁸ ▲이 활⁸³
▲이미자⁶⁵ ▲이미진⁹¹ ▲이병연⁸⁹
▲이상훈⁸⁴ ▲이시현⁹³ ▲이임수⁸⁷
▲이정수⁹⁵ ▲이정희⁶⁹ ▲이주희⁹³
▲이현미⁸⁸ ▲이화일⁶⁷ ▲임소인⁹⁰
▲임양혁⁹¹ ▲임은정⁸⁷ ▲장미경⁸⁰
▲장원석⁹⁶ ▲장재흥⁶¹ ▲장정은⁸⁹
▲장창환⁶¹ ▲정국진⁶¹ ▲정효련⁸⁸
▲조동제⁵⁹ ▲조위민⁶³ ▲채희철⁸⁸
▲최인배⁷⁷ ▲최재원⁹⁶ ▲한애화⁸⁸
▲허윤정⁹⁰ ▲홍기엽⁹⁰

◇醫科大學

▲강문수⁴⁹ ▲고은성⁸⁸ ▲고재경⁶⁰
▲김우호⁸⁰ ▲김원희⁶² ▲김재면⁸¹
▲김태규⁷⁶ ▲노경운⁸⁵ ▲박정식⁷⁵
▲방장훈⁷⁴ ▲백성룡⁵² ▲안종호⁸⁹
▲윤자현⁵⁹ ▲이남수⁵⁰ ▲이동호⁷⁹
▲이재식⁸⁵ ▲이재식⁸⁵ ▲이창홍⁶⁶
▲전성환⁸³ ▲주재식⁸³ ▲최기용⁸¹
▲최훈동⁷⁹ ▲하규섭⁸⁶

◇齒科大學

▲강신영⁷³ ▲김 무⁶⁸ ▲김명진⁷⁷
▲김영진⁸⁸ ▲김영호⁶¹ ▲김정태⁷⁴
▲김주영⁶² ▲김진용⁸⁷ ▲김전식⁷⁷
▲나춘화⁸⁰ ▲박승오⁶⁸ ▲박이자⁶⁶
▲박인옥⁸⁹ ▲백승진⁸³ ▲신철수⁷⁷
▲안 박⁶⁶ ▲이만선⁷² ▲이병규⁶¹
▲이일영⁷² ▲이준규⁷² ▲이흥렬⁶¹
▲조영진⁸⁸ ▲조한제⁸³ ▲최명진⁸¹
▲최병식⁶² ▲최종건⁸¹ ▲호창진⁵⁹
▲홍성호⁶⁶ ▲홍현중⁸⁸

◇大學院

▲권택호⁸⁹ ▲김길곤⁷⁷ ▲류근일⁹⁴
▲류은희⁸¹ ▲박병인⁸⁸ ▲박희복⁸⁵
▲윤병배⁸⁰ ▲윤보옥⁷⁶ ▲이용훈⁸¹
▲이재철⁷⁸ ▲이재훈⁸⁵ ▲차광호⁹⁵

◇經營大學院

▲안종훈⁷¹ ▲이혁수⁹⁶

◇教育大學院

▲김정휘⁷³ ▲이학원⁷⁴ ▲현덕규⁷⁶

◇保健大學院

▲김연관⁷³ ▲박미진⁹¹ ▲이준협⁸⁶
▲정경수⁷⁴ ▲정희곤⁶⁸ ▲조희숙⁹⁹

◇行政大學院

▲김경엽⁶⁵ ▲성낙수⁷¹ ▲최상철⁶⁴

◇環境大學院

▲강덕원⁸⁷ ▲김학범⁸¹ ▲박경자⁷⁹
▲신언교⁹¹ ▲이춘택⁷¹

◇최고경영자과정

▲강호정³⁸ ▲고광준⁴⁸ ▲곽병구¹⁷
▲구충모³⁰ ▲권국주³⁸ ▲권기정⁴⁴
▲권용진³⁶ ▲김관영⁴⁵ ▲김광석³⁷
▲김광연⁴¹ ▲김규성⁴⁴ ▲김기열³⁰
▲김기택¹⁸ ▲김상선⁴⁷ ▲김상열⁵⁰
▲김성철³⁶ ▲김성환²⁵ ▲김수환¹⁵
▲김영대⁴⁹ ▲김영덕⁴⁶ ▲김영웅²⁸
▲김영훈⁴⁹ ▲김옥한³⁷ ▲김이환⁴¹
▲김재석⁵⁰ ▲김재성¹⁹ ▲김재택³³
▲김정욱³⁷ ▲김종협²⁸ ▲김진섭⁹
▲김창규³⁹ ▲김현수¹⁶ ▲김홍구⁴⁹
▲김홍래³⁶ ▲남궁옥강¹ ▲남현일³²
▲노광섭³² ▲노석호³⁰ ▲노선호²⁴
▲류근하³² ▲문만수³² ▲문승용⁴
▲민경서⁴⁸ ▲박 석²⁵ ▲박경명⁴⁸
▲박근영²⁵ ▲박순일¹³ ▲박영수³³
▲박재상⁶ ▲박재율³⁶ ▲박철순⁴⁷
▲박해주¹⁸ ▲배성순¹¹ ▲서 구⁴¹
▲서석홍³⁰ ▲손성섭⁴³ ▲손성운⁵⁰
▲손재환⁴⁸ ▲손진영²² ▲신정용⁴⁶
▲심명구¹² ▲안경선⁴¹ ▲안부치³⁷
▲안종표³⁶ ▲양성모⁴³ ▲양성욱¹
▲양시백⁴⁴ ▲여준선¹⁴ ▲염삼탁³¹
▲오일랑³⁰ ▲원동혁¹⁶ ▲유시종¹⁹
▲유재우⁴⁷ ▲유정갑³³ ▲윤근혁⁴⁷
▲윤동균⁴⁶ ▲윤우영²⁶ ▲이경봉³⁸
▲이균범¹⁶ ▲이근철⁵⁰ ▲이동준²⁹
▲이병구¹⁶ ▲이상영⁴¹ ▲이상용⁴⁹
▲이상준⁴⁶ ▲이석범¹¹ ▲이성연⁴
▲이승은¹⁴ ▲이연성⁷ ▲이영열⁴⁶
▲이장한³⁷ ▲이종철¹⁰ ▲이종태⁵⁰
▲이준호²⁴ ▲이현섭²² ▲이형팔³⁹
▲이홍근²⁶ ▲이홍근⁴¹ ▲임동수⁴²
▲임성주⁴² ▲장두섭¹⁷ ▲장명웅⁴⁰
▲장복진²¹ ▲장봉용²⁵ ▲장주상²⁹
▲전동근¹¹ ▲전정측⁴⁷ ▲전창열³⁹
▲정 덕⁴⁸ ▲정 열¹⁴ ▲정건택²¹
▲정광훈⁴⁷ ▲정달영⁸ ▲정문호⁴⁷

▲정보연⁴³ ▲정봉택¹³ ▲정영수⁴³
▲정인근³⁵ ▲정흥기³⁰ ▲조각래²⁸
▲조현제³⁸ ▲진성섭¹⁰ ▲진희규⁴⁴
▲전광찬²⁸ ▲최기덕¹⁴ ▲최성종⁴⁷
▲최성택²³ ▲최우열²⁵ ▲최종일⁴²
▲최현열³ ▲최호경²⁸ ▲하정우¹⁵
▲하태준¹² ▲한중석²⁷ ▲허덕행²
▲현경자⁴⁰ ▲현송철⁴⁹ ▲홍종식⁴⁷
▲황석희⁴² ▲황종연³⁹

◇최고산업전략과정

▲김명현²² ▲김성기²⁴ ▲문주현²¹
▲선삼규²⁴ ▲송기숙²³ ▲송정섭²³
▲신길웅¹⁰ ▲윤창국⁸ ▲이두평⁸
▲이재섭¹⁴ ▲장문삼³ ▲정태련⁷
▲최길순²¹ ▲하광운¹⁷ ▲현정원¹⁹

◇국가정책과정

▲강희관⁴⁴ ▲권상문⁴⁵ ▲김덕승²
▲김동찬¹⁸ ▲김병문²³ ▲김우연¹⁴
▲김재현⁵⁰ ▲김창수³⁵ ▲김창식⁴⁵
▲김창환²⁷ ▲문동명⁴⁴ ▲민경자⁴³
▲박영순⁴³ ▲손찬준⁴⁰ ▲안성혁³⁹
▲오복용⁵¹ ▲유성종³³ ▲이덕수⁴⁴
▲이범진⁴⁸ ▲이의재¹⁶ ▲전 홍⁴⁸
▲조건창⁴⁹ ▲조주태¹⁴ ▲최귀남⁷
▲최재선¹⁸

◇고급금융과정

▲서종태¹⁶ ▲조상훈⁵ ▲최인규⁹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하진⁶ ▲이용일³ ▲정종환³

▲정해순³

◇가정간호수습과정

▲김영숙⁸ ▲이홍자⁸ ▲임승정⁵
▲전계영⁷ ▲한은영⁸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석훈¹ ▲강성하⁷ ▲강승원⁷
▲강영원⁷ ▲권 결⁶ ▲김명환⁷
▲김미영⁷ ▲김복승³ ▲김사운³
▲김세창⁶ ▲김향태⁶ ▲김희태⁶
▲박덕수² ▲서정설⁶ ▲손정표⁷
▲오흥재¹ ▲윤현기⁵ ▲이양섭⁴
▲이우용³ ▲이은영⁷ ▲이재덕⁵
▲이재원⁴ ▲이중원⁶ ▲임승일⁷
▲임희수⁷ ▲조규상⁷ ▲조승식⁴
▲조창현⁷ ▲주재현⁴ ▲지정훈⁷
▲최용삼³ ▲하영일⁷ ▲황요성⁶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권강주³ ▲성치용⁴ ▲성현제⁷
▲이광재³ ▲이상민⁵ ▲이창훈⁴
▲정철수⁷

◇해양정책최고과정

▲김종록¹ ▲박영진¹ ▲송만순¹

합계 : 37,680,000원

총계 : 428,509,808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1년 7월 발금 회원 명단)

개 인

◇人文大學

▲김성연⁸⁸ ▲김정남⁸⁹ ▲라은미⁹¹
▲유석형⁷⁸ ▲윤지연⁹⁹ ▲황성태⁹⁶

◇社會科學大學

▲권남열⁹⁷ ▲송상우⁹⁰ ▲정윤제⁹⁹

◇自然科學大學

▲이진원⁹⁵

◇家政大學

▲박민희⁹¹ ▲임경숙⁶⁰

◇看護大學

▲장내원⁴⁹

◇經營大學

▲조기석⁸⁶

◇工科大學

▲김동욱⁹⁶ ▲김수현⁹⁷ ▲박동진⁹³
▲송동익⁷⁸ ▲신창용⁹⁶ ▲오영철⁹³
▲이동훈⁹⁰ ▲이성배⁷⁸ ▲이중호⁹⁰

◇農科大學

▲김병영⁸⁷ ▲김상국⁹⁴ ▲박석규⁹⁰
▲윤상현⁹⁶ ▲윤재섭⁹⁰ ▲이원석⁹⁹
▲이종범⁹⁹ ▲정종삼⁹⁵ ▲조건형⁹⁶

◇文理科大學

▲김종인⁶⁶

◇美術大學

▲서원영⁹²

◇法科大學

▲김남철⁹⁷

동문의 소리

정직은 모든 일을 성공시킨다

潘錦煥(70년 行大院卒)제일행정고시학원장



“
어떤 위기에 직면해도
그 책임을 결코
타인에게 전가하는
허약한 동문이 아니길...”

”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다. 고객들에게 가훈·사훈 등을 현장에서 붓글씨로 써서 화려한 틀에 넣어 주는 사은행사가 시중은행의 한 지점에서 있었다. 줄을 서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 「家和萬事成」 등 우리들이 오랜 세월 선호해 왔던 다양한 명구들을 선택하여 너도나도 주문을 하고 있었다.

필자는 경제한파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강생들을 위하여 학원의 한쪽 벽에 그 동안 붙여 놓았던, 「정직은 모든 일을 성공시킨다」라고 하는 글귀를 우리학원의 원

훈으로 정하려고 마음먹고, 그 제작을 당부하고는 이 일을 잊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열흘쯤 지난 무렵, 원훈이 완성되었으니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고 그 지점에 갔을 때, 「왜 안 찾으러 오셨어요?」 「이 내용과 꼭 같은 사훈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그 동안 너무 너무 많았어요」라고 반색을 하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액자를 포장해 주던 여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순탄한 인생여정에 있어서는, 정직함은 그 고유한 빛깔이 바랜다. 그러나, 역경에 처한 사

람의 정직함은 그 찬란한 광채를 발한다.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시인할 때, 우리는 그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그의 정직함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감과 그러한 실수는 더 이상 없으리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혼화되어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매사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수를 저지른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응어리를 용감하게 해결하려는 미래지

향적인 접근자세야말로 자기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서울대 동문은 비록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는 일이 있다 해도 그 책임을 결코 타인에게 전가하는 허약한 동문이 아님을, 그리고 나의 잘못을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용기로 무장한 강한 동문임을 세인에게 널리 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金大中주필과 수백개의 펜

秦聖昊(85년 經營大卒)조선일보 문화부 매스미디어팀장



“
요즈음의 언론사태는
더욱 펜을 날카롭게
갈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진다

”

몇 주 전 있었던 일이다. 선배 한 분이 신문사를 그만두겠다고 출근하지 않았다. 후배 기자들은 그 선배를 찾아갔다. 그 선배의 선배들도 함께 있었다. 직장인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오지 않으면 동료 선·후배들이 찾아가 달라고 하는 일은 다반사다. 그러나 이날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다. 사의 번복을 요구하는데 국가와 국민이 거론됐고, 정권과 언론자유란 말이 나왔다.

이 「선배」의 이름은 金大中. 조선일보 주필이다. 金주필이 조선일보에 입사도 하기 전에 편집국장을 지낸 대선배 윤주영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 그가 정치부 말석 기사를 할 때 정치

부장을 했던 원로언론인 이종식 씨, 그의 입사동기인 안병훈 조선일보 부사장이 있었고, 후배인 고학용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논설위원들과 편집국 간부, 기자 등 15명이 金주필과 술자리를 했다. 金주필 집에서 멀지 않은 한 카페에 모인 이들은 좌석이 좁아 카운터 의자를 가져다 오고, 서로 몸을 밀착해 앉아야 했다. 그리고 金주필이 회사에 다시 나오도록 권유하고, 설득하고, 때론 협박도 했다. 이날 술자리에서 화제는 「수백개의 펜」이란 표현이었다. 金주필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조선일보에는 수백개의 펜이 있다는 것을 이 정권은 알아야 한다」고

했다. 金주필의 후배들은 이 표현을 통해 정치권력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술자리는 그 날 결론 없이 끝났고, 다음날도 金주필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주 금요일 오후, 金주필은 사의를 번복했다. 글을 통해서였다. 격주로 토요일자에 실리는 金大中 칼럼 「공은 정권의 손으로」를 그가 집에서 보내온 것이다.

조선일보 4층 편집국 문화부의 내 자리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진 수백장이 걸려 있다. 그중 하나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부 기자 金大中이 대통령 후보 金大中的 옆에 앉아 취재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 사진을

요즘 유심히 본다. 「金大中 대 金大中」, 金大中주필이 金大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만의 하나라도 오늘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언론사태」는 기자들에게 과거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준 것이 사실이다. 그와 함께 더욱 펜을 날카롭게 갈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선일보에 있는 수백개 펜들이 요즘 하는 생각이 다.

농산물도 인터넷에서 사세요

金玄權(91년 自然大卒)농촌과 도시 대표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고,
궁금한 것도 물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어쩌다 늦깎이로 대학을 졸업한 뒤 원서 한번 내 보지 못하고 고향 의성으로 내려 왔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 제 정신 차리고 살다 보면 언젠가 마땅히 할 일이 나타나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올해로 소도 키우고 사과농사도 지은 지 10년째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농사일은 벅잡니다. 제 땅에는 열심히 해도 옆집 아저씨 설령설령 하는 것만 못합

니다. 그 대신 파는 것은 제가 훨씬 낫습니다. 무려 15년을 서울 살다 온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발달된 정보통신시대의 덕을 톡톡히 보는 것이겠지요.

내친 김에 오랫동안 교류해오던 전국의 좋은 생산자들을 모아 인터넷 공동체 「농촌과 도시」(www.nongchon21.com)를 열었습니다. 도시의 소비자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모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생산자들이 직접 등장해 살아가는 얘기, 농사짓는 얘기도 해서 신

뢰도 쌓고 나아가 고향이 없는 도시인들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다 서로 마음 맞으면 직접 내려와서 아이들과 개울에서 물방개, 가재도 잡아 보구요.

문을 연지 아직 1년이 안되어 현재 50여 농가가 모여 쌀, 과일 등 2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래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엇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어 좋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자연스레 생산자

들의 풍성한 마음 씀씀이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지리산에도, 당진 갯벌에도 생산자들이 있어 전화 한 통화 드리고 하룻밤 신세질 수 있는 형편도 됩니다. 한번 조용한 기회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